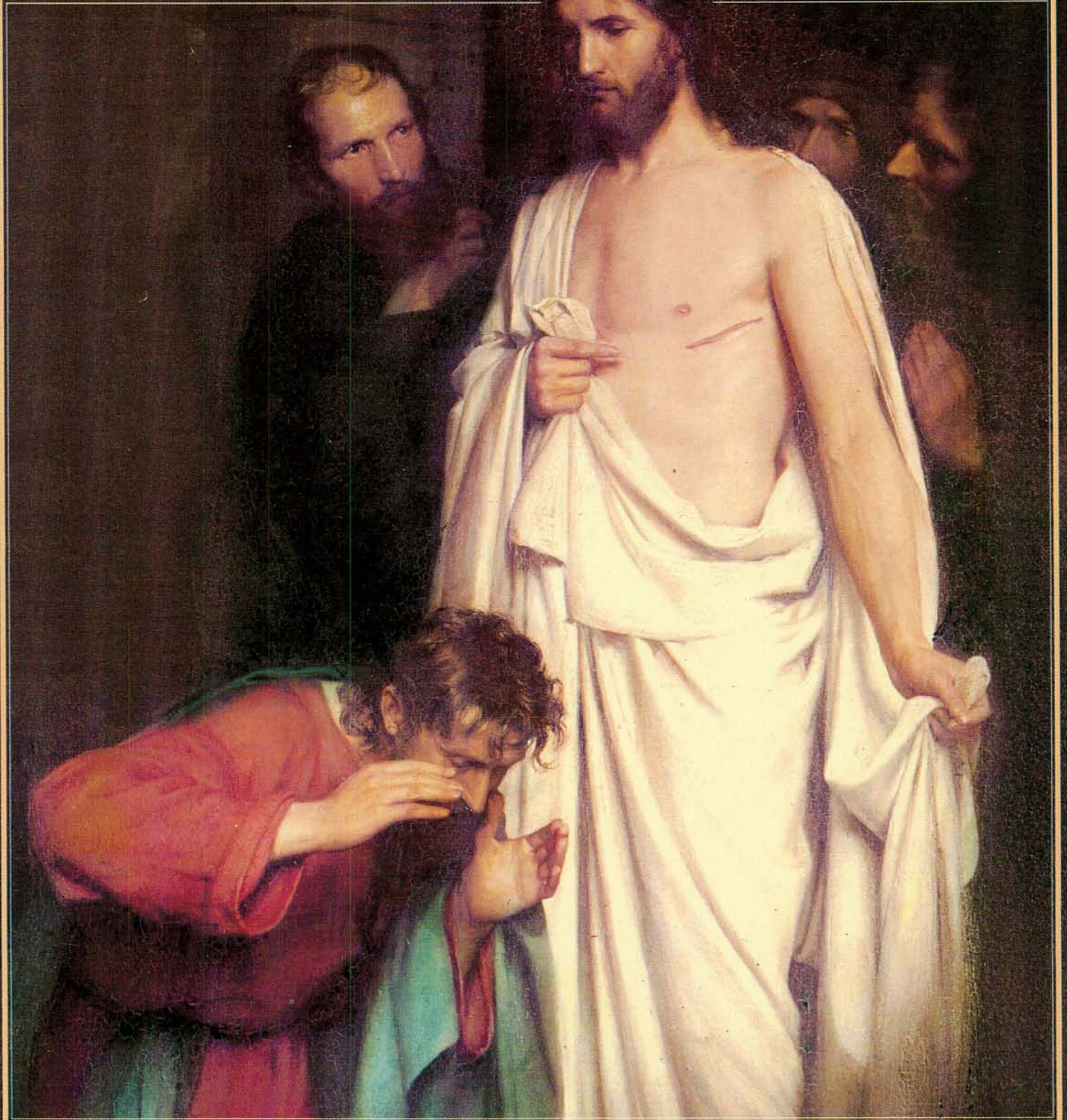


성도의 빛 4

1989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4월호 별책 부록 : 성도의 빛 어린이란

성도의 벗

1989년 4월호

교회 잡지인 성도의 벗은 엔사인, 뉴 이라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차드 지 스코트

고문 : 휴 더블류 피녹크, 진 알 쿡,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조지 피 리, 키드 더블류 윌콕스

통 권 : 제274권, 제29권, 제4호

등 록 :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 1989년 4월 1일(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정 기 만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인쇄인 : 영인쇄주식회사 이 세 용
International Magazine PBMA8904KO

PRINTED IN KOREA 4/89

© 1989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The *Songdo-ui Pot*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Application to mail at second class postage rates is pending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4,000원 입니다. 권당 400원이며,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에는 우송료를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워드 / 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한국 출판부(☎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2 대관장단 메시지 :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7 책이 외침.....마빈 케이 가드너

10 "완전한 하루"를 시도함.....브렌다 블록섬 헌트

15 천사의 수종을 받음.....바바라 더블류 윈더

18 성도들과 함께 올 때.....글렌 엘 페이스 감독

25 성취된 축복.....스탠튼 맥도널드

27 관용,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시작.....앤 앤 맨슨

31 방문 교육 메시지 :

모든 회원은 선교사임

33 장애자를 도움.....칼멘 비 핑그리

37 너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느니라.....줄리 하우윌러

질의 응답 :

38 자녀를 축복함.....수잔 이스톤 블랙

청소년란

40 영의 노래.....베키 토마스

43 신앙의 눈.....로버트 비 하버트슨 장로

49 책에 대한 보고.....로버트 에이버리 그레이 이세

어린이란

2 요셉과 올리버가 신권을 받음

5 할아버지의 환갑.....버너딘 비이티

친구가 친구에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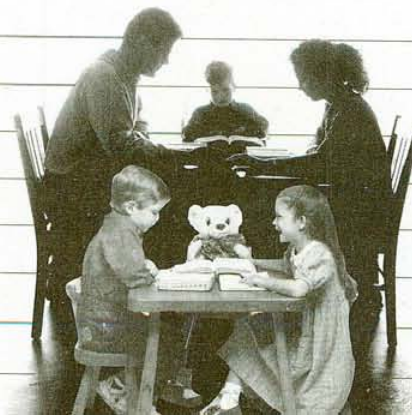
7 미셸린 그래스리.....샌드러 스톨링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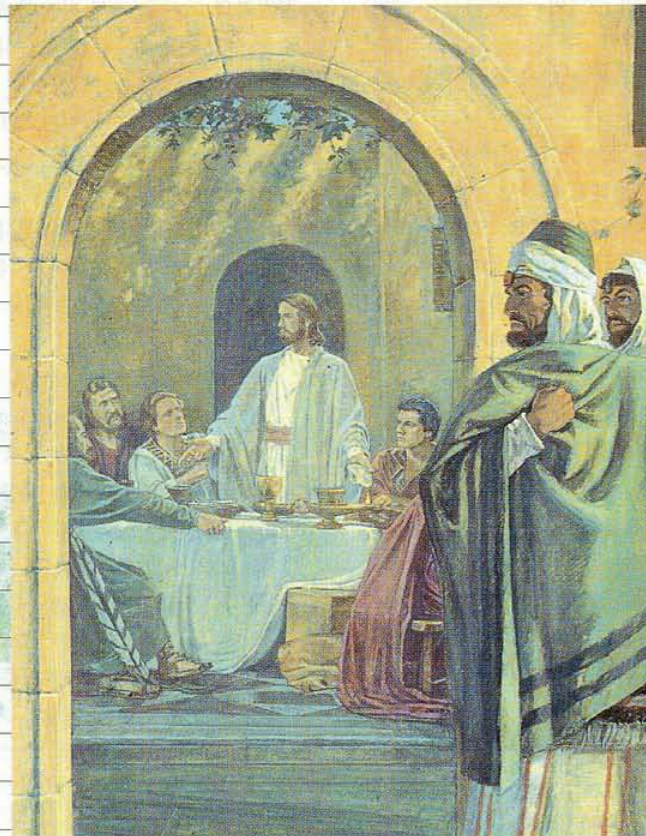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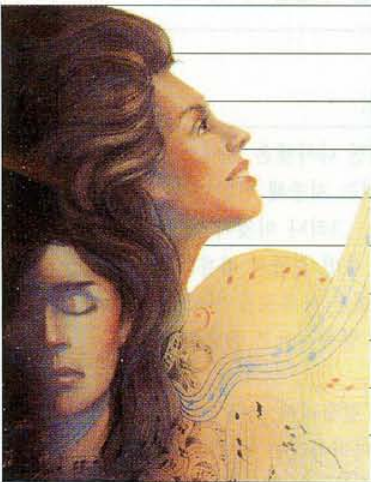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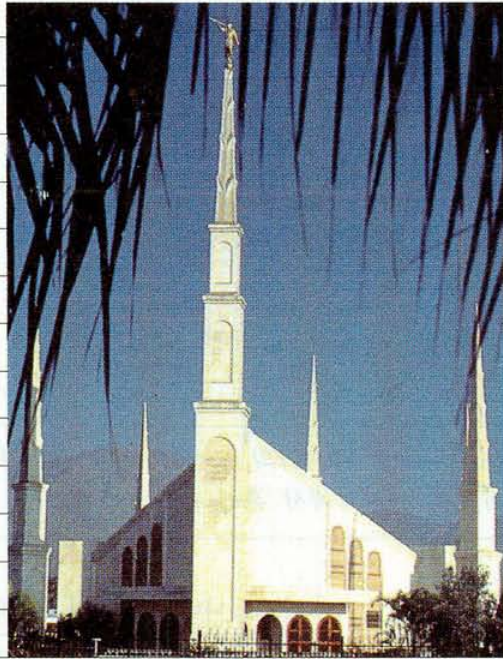
8 심심풀이.....로베르타 페어틀

교회 및 지역 소식

표지 : "의심을 품고 있는 도마" 칼 하인리히 블로호 작.
사진 제공

© 덴마크 프리드릭스보호성 예배당 소장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토마스 에스 몬슨
대관장단 제2보좌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약속된 메시야의 오심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언제 오실까? 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대답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천 년 전 인자는 압박과 슬픔으로 찢긴 우리의 세상과 같은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로마 군대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탈취한 지 63년이 지났습니다. 로마 군대의 깃발이 어느 곳에서나 보였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선포한 후로 여러 세대가 살다가 죽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이사야 7:14, 9:6)

그러한 약속이 전해진 뒤, 세상의 구세주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라 오너라”하고 말씀하신 불명의 말씀을 그가 들었을 때 느꼈던 지고의 기쁨과 넘치는 환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지식은 숨겨질 수 없었으며, 것처럼 기쁜 소식을 벧세다의 빌립이 자신만 알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요한복음 1:45~46)

정복된 땅으로서 멸시받는 지역 가운데서도 가장 무시받던 나사렛이 것처럼 영광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나다니엘을 따라 가봅시다.

예루살렘에서 128킬로미터 떨어진 나사렛은 다마스쿠스에서 갈릴리의 도시를 거쳐 아크레에 있는 지중해 연안까지 연결된 주요 무역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마을이 알려지게 된 연유는 아닙니다. 그 주변 경관의 아름다움에서 그 영광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나사렛은 무역로를 따라 발생하는 사건이나 아름다운 경치보다도 더 영속적이고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나사렛이라 불리우는 한 도시인 갈릴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왔습니다. 그는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제가…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누가복음 1:30~32)

아기 그리스도의 탄생과 애굽으로의 피신 이후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해 줍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어 함이러라”(마태복음 2:23)

나사렛에서 소년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누가복음 2:52)

장님을 보게 하고 절름발이 거지를 걷게 하고 죽은 자까지

살리신 이가 나사렛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변화시킨 기쁜 소식을 가르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었는지를 우리 스스로 알아보기 위해 이 위대한 사건들을 더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째,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한 인물을 살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마태복음 11:11) 자기보다 “강한 자”가 오리라는 것을 안 요한은 “길을 곧게”하는 자로서의 임무에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의 영적인 조상이었던 먼 곳까지 이어지는 예언자들을 돌이켜 볼 수 있었습니다. 앞을 내다보면 그는 그가 증거해야 할 빛을 처음으로 본 자였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마가복음 1:9)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시니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요한복음 1:32~34)

모든 자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침례받으신 완전하신 분이 나사렛에서 오셨습니다.

둘째, 유대교 가서 모든 것이 늘 밤이었던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의 간증을 살펴봅시다. 그에겐 낮이란 없고 그저 밤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어떻게 빛으로 바뀌었는지를 말해 주는 그의 말을 들어봅시다. 그가 새롭게 시력을 얻은 것을 알고 놀란 이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요한복음 9:8~11)

믿지 않는 자들이 소경에게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줄 아노라”하고 말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요한복음 9:24~25)

나사렛으로부터 시력이 왔습니다.

다음은 벧세다로 여행하여 38년 동안 걷지 못하다가 지금은 걷는 사람을 찾아가 봅시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낮고자 하느냐” 소망과

좌절이 뒤섞인 그의 대답에 부드럽고 거룩한 명령이 뒤따랐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요한복음 5:6, 8)

나사렛에서 병든 자에게 새로운 힘이 왔습니다.

나사렛의 예수께서는 시력을 회복하시고 사지에 힘을 주셨지만 죽은 자를 소생시키신 것은 사실입니까?

가버나움에서 회당장인 야이로가 주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그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하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는 집에 도착하여 슬픔에 잠긴 자들을 지나시며, “너희가 어찌하여 흰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모두 내보내고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녀야...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마가복음 5:23~43 참조)

죽음이 있었던 곳에 생명이 나사렛에서 왔습니다.

그 기적과 함께 우리의 삶도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완전한 본보기가 주어졌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마가복음 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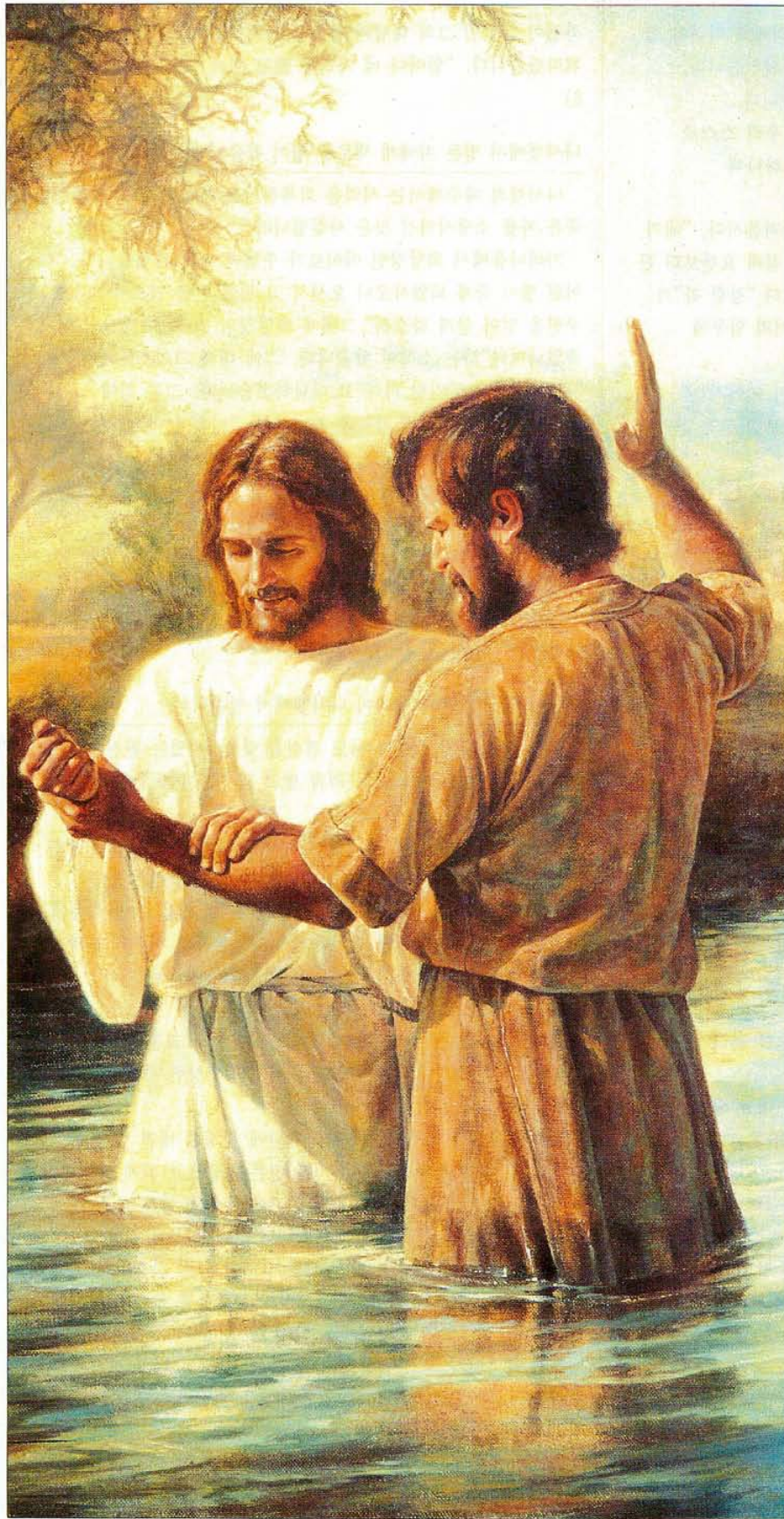
나사렛으로부터 여러 세대를 거쳐 그의 훌륭한 모범과 소중한 말씀과 거룩한 행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고난을 참아내도록 인내를 갖게 하며 슬픔을 이겨 낼 힘을 주며 죽음에 직면할 용기와 삶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혼돈과 시련과 불확실의 세계 속에서 그러한 신성한 인도의 필요성이 지금보다 더 절실했던 적은 없습니다.

나사렛, 가버나움,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의 교훈은 거리의 장벽, 시간의 흐름, 이해의 제한을 뛰어넘어 상한 마음에 빛과 길을 가져다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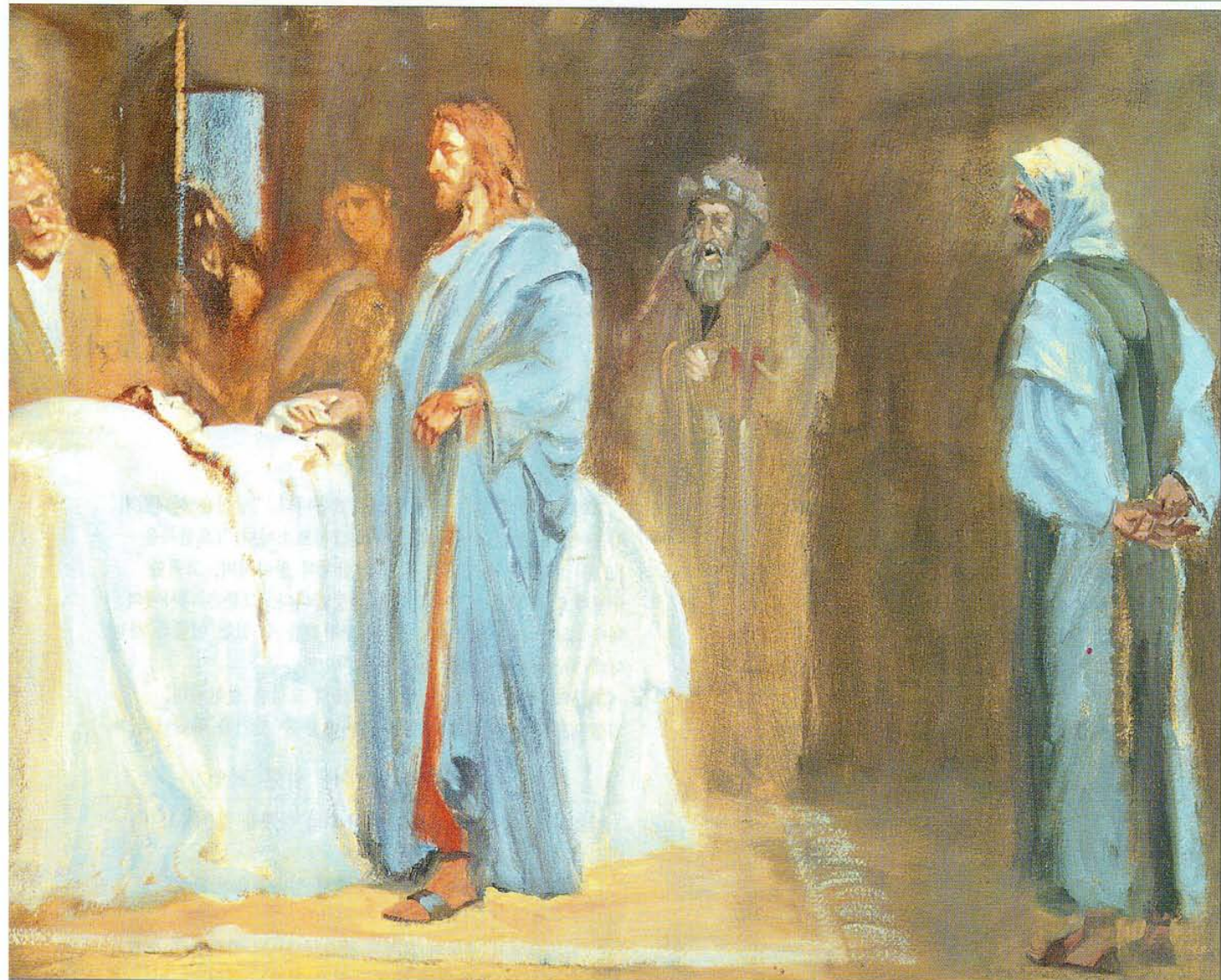
우리는 용감하게 죽은, 자유의 제단에 생명을 바친 한 젊은이와 그리 젊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슬픈 마음으로 읽게 됩니다. 그 젊은이는 다급한 순간에 종이 쪽지에 급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글을 적어 보냈습니다. “곧 우리는 전쟁터로 갑니다. 적진은 튼튼하여 많은 사람이 희생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기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죽음을 두려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 귀중한 편지를 받은 같은 날 다른 전간이 왔습니다. “아드님이 작전 중에 전사했음을 알려 드림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친구가 방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했지만, 평화는 나사렛을 그의 고향이라고 부른 그분으로부터만 옵니다.



나 사렛에서 주님은 요단강까지
가셔서 침례받으셨으며
가버나움까지 가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Glen S. Hopkinson

모든 전쟁이 반드시 적지에서만 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전투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늘 무기를 드는 것도 아니며 수류탄을 던지거나 폭탄을 투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캘리포니아 병원 4층에서 그러한 투쟁을 목격했습니다. 그곳에는 박격포가 터지는 날카로운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병사나 무기가 있는 전투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과 사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명랑하고 잘생긴 15세의 폴 반 두센은 암이라고 불리는 두려운 적과의 최초의 싸움에서 패했습니다.

폴은 삶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운동을 잘 했습니다. 그와 그의 부모는 의사가 두려워하고 있던 일, 즉 그의 귀중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다리를 잃어야 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폴은 회복되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그의 병실로 들어서면서 나는 그의 환한 미소에

즉시 매혹되었습니다. 그는 소망과 선행의 정신을 보여 주었습니다.

잘 퍼진 하얀 시트는 있어야 할 한쪽 다리가 없음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 주었습니다. 침대 곁에는 친구들이 가져 온 꽃이 놓여 있었으며, 폴의 생명을 구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부모는 침대 곁에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폴은 내게 그가 받은 회복을 비는 카드를 읽어 달라고 했습니다. 한 카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폴, 우리는 너를 사랑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것은 주일학교 공과반 반원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학교의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는 이런 카드를 받았습니 다. “네가 곧 회복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네가 훌륭하다고 생각해.” 가정 복음 교사로부터 온 카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내일 다시 방문할게.”

나사렛 출신의 목수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 무엇이라고

나사렛에서

선한 모든 것이 나왔으며,
우리 인생에 희망과 의미를 주는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했습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40)

그날 기도의 영은 쉽게 왔습니다. 완전한 평화가 병실에 가득 찼습니다. 확신에 찬 미소가 눈물로 젖은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먼 가버나움으로부터 “두려워말고 믿기만 하라”는 메아리를 듣는 듯했습니다. 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팬츠를 거예요.”

우리는 신앙으로 가득한 마음과 감사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구를 믿는 신앙입니까?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나사렛 예수는
구세주니
죽음을 이기고
생명 주네
보좌를 떠나서
땅에 오사
생명을 버리고
구속 하셨네
(찬송가, 25장)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나사렛에서 모범이 왔습니다.
나사렛에서 시력이 왔습니다.
나사렛에서 힘이 왔습니다.
나사렛에서 생명이 왔습니다.
나사렛에서 신앙이 왔습니다.
나사렛에서 평화가 왔습니다.
나사렛에서 용기가 왔습니다.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그에게 나다니엘은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요한복음 1:49) 나는 그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고귀한 구세주요 사랑하는 구속주임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하늘 아래 다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 그분의 모범을 실천하며, 영생으로 향하여 그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 사항 :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모든 자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침례받으신 완전하신 분이 나사렛에서 오셨습니다.
2. 나사렛에서 주님의 기적이 왔습니다. 그 기적으로 소경이 시력을 되찾고 약한 자가 새로운 힘을 얻고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3. 나사렛에서 신앙과 평화와 용기가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삶의 시련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구세주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고 그분의 모범에 따를 때,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받게 됩니다.

토론시 유의 사항

1.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느낌을 말한다. 가족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하신 일에 대한 그들의 느낌을 말하게 한다.
2. 이 기사에서 가족이 큰 소리로 읽고 토론할 수 있는 성구나 인용문이 있는가?
3. 방문하기 전에 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이 토론이 좀더 나아질 수 있겠는가? 정원희 지도자나 감독의 메시지가 있는가?

책이 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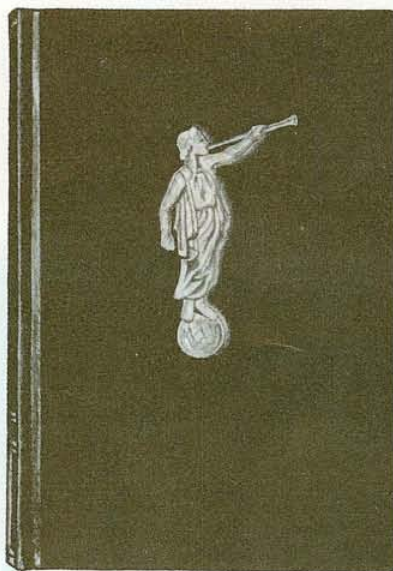
마빈 케이 가드너

멕 시코, 자카테카스의 토레온에 사는 마릴루 라미레즈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을 때의 나이는 겨우 여덟 살이었다. 그녀는 길거리에 놓여 있는 신문 잡지 판매대에서 신문과 텔레비전 잡지 사이에 있는 푸른 표지에 황금빛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는 책을 본 것이다.

그 책이 어떻게 그곳에 놓이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신문 판매대는 그 책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처럼 보였으며, 그녀에게 집어서 읽어 보라고 외치는 듯했다. 그 소녀는 책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 갔다.

어머니가 볼 때 그 책은 딸이 전부터 집에 가져 온 여러 가지 이상한 종교 서적 가운데 하나였으므로 그 책을 사서 읽는 딸을 나무랐다. 가족은 마릴루가 너무나 내성적이고 하나님과 종교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상스런 아이라고 생각했다. 가족의 전통적인 교회에 대해 이 어린이가 갖고 있는 불만을 누가 알 수 있었겠는가? 어째서 그녀는 종교 서적을 사는 데 얼마 없는 돈을 쓰며 그것을 읽는 데 시간을 낭비하려 했는가? 가족이나 친구의 조소와 압력이 아무리 심해도 그녀에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마릴루에게 있어 황금빛 천사가 새겨진 이 푸른 표지의 책은 그녀의 다른 어떤 책과도 달랐다. 그 책에 대한 무엇인가가 내부에서 경이로운 감동을 느끼게 했으며, 첫 페이지를 다 읽기도 전에 그녀는 울었다. 페이지마다 그런 느낌을 더해 주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마치 한 방울씩 떨어져 컵을



채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특이한 책은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이 책이 아마 동방의 어느 알려지지 않은 종교의 서적이거나 인도에서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하고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 책이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낼 방법도 몰랐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나는 그 책이 참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후 9년 동안 마릴루는 그 책에 몰두하여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열 일곱 살이 되었을 때 흰 셔츠를 입은 두 명의 남자가 같은 버스에 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책을 보고, 그녀는 그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책에 대해 혹시 무엇인가 알고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가 물어 볼 용기도 갖기 전에 그들은

버스에서 내려 버렸다.

한달 후, 비슷한 두 명의 청년을 보았을 때 기회를 얻었다. “복음을 가르치시나요?”하고 그녀가 물었다. 그들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여러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아시나요? 잘 알려지지 않은 종교를 찾으려고 하는데요.”하고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물몬경에 대해 말해 주었다.

장로들은 서로 쳐다보고는 싱긋 웃었다. “우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입니다. 자매님과 자매님 가족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물몬경이 어느 교회에서 사용하는 책인지만 알면 돼요.”하고 그녀가 말했다.

‘농담을 하고 있나?’하고 장로들은 생각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리우는지 아십니까?”하고 한 장로가 물었다. “물몬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물몬경을 그녀에게 보여 주었을 때 그녀는 그들을 믿게 되었으며 바로 그날 그 책에 관해 더 듣기를 원했다.

그날 저녁, 선교사가 처음 방문하여, 가르치는 동안 마릴루는 토론을 여러번 중단시켰다. 어떤 질문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던 물몬경의 구절, 즉 그들이 가르치는 개념을 확신케 해 주는 구절 때문이었다. 선교사들은 그녀가 물몬경의 내용을 것처럼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찾아야 할 구절을 것처럼 쉽게 찾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다음날 저녁 토론에서도 이 일은 거듭



그 책이 어떻게 그곳에 놓이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신문 판매대는 그 책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처럼 보였으며, 그녀에게 집어서 읽어 보라고 외치는 듯 했다.

반복되었다. 그들이 마릴루에게 침례를 받고 싶으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네, 내일이요.”하고 대답했다. 부모의 동의를 얻어 그녀는 다음 날인 1984년 8월 22일에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는 선교사로 봉사할 것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나는 여덟 살 때 그 책을 발견한 이후로 다른 사람에게 물몬경에 관해 말하고 싶어했어요. 이제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하고 그녀가 말했다.

그러나 당시 그녀는 겨우 열 일곱 살이었다. 그 후 매년 생일이 되면 그녀는 감독에게 선교사로 나갈 나이가 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녀는 스물 한 살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동안 그녀는 초등학교와 주일학교에서 가르쳤으며 복음에 대한 지식을 계속 쌓았다.

그러던 중 스물 한 살이 되자 부름이 왔다.

마릴루 라미레즈 자매는 준비되었다. 총명한 학생인 그녀는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기도 전에 국민학교에서 가르쳤으며 주의깊게 돈을 저축했다. 부름이 왔을 때 그녀는 선교 사업에 필요한 돈을 충분히 모아 두었다. 그 무렵 그녀는 선교 사업을 마친 뒤 복직된다는 보장도 없이 직장을 그만두었다.

가족은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어렸을 때는 종교 서적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더니 이제는 좋은 직장까지 던져 버리고 저축한 모든 돈과 18개월의



인생을 허비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떠한 압력도 그녀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다.

선교 지역에서 그녀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매주 그들에게 편지를 쓴다.

1988년 1월 24일, 그녀가 속한 그룹이 멕시코시티 선교사 훈련원을 떠나 선교 지역으로 가기 전, 마릴루 라미레즈 자매는 모임을 하는 도중 간증을 하기 위해 일어섰다. 뒤로 빗어 넘긴 철쭉같이 검은 머리는 두 개의 푸른 머리핀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며 허리까지 내려 왔다.

단상에서 그녀는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하기 위해 낮은 발판 위에 올라섰다. 그녀의 작은 체구는 조용히 말할 것처럼 보였으나, 목소리는 힘찼으며 간증은 성숙한 제자의 간증이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 위해 싸워 왔습니다. 주님이 안계시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느끼고 있으며, 제가 누구를 신뢰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음날 그녀가 선교부장과 그 보조들을 만났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강한 간증을 했다. “며칠 전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분의 영을 느꼈으며 그분의 사랑에 압도되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드릴 때 ‘왜 저를 그토록 사랑하십니까?’하고 여쭙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는 듯했습니다. ‘너는 내가 온 세상을—나의 모든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나는 아무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느니라.’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각 사람에 대한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음성은 다시 감정으로 가득 찼다.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저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과 선교사로 그분께 봉사할 수 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라미레즈 자매는 현재 멕시코시티 방문자 센터에 찾아오는 비회원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 저녁이면 그녀는 동반자와 함께 그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그들 가정에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나간다.

여덟 살 때의 아이처럼 스물 한 살된 선교사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어린 시절 물몬경을 읽을 때 한 방울씩 채워지던 그녀의 컵은 이제 흘러 넘치고 있다.*

“완전한 하루”를 시도함

브렌다 블록섬 헌트

감독님의 권유가 우리 삶에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완전에 이르는 길을 따라 가도록 도움을 주었다.

“여러분 가운데 ‘완전한 하루’를 살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하고 감독님이 회중에게 물었다. 사람들이 손을 들었다. 어떤 사람은 높게, 어떤 사람은 낮게, 몇몇 사람들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 놓고 있었다. “좋습니다.”하고 감독님이 머리를 끄덕이셨다. “래리 형제님”하고 그는 와드 회원 중 한 사람을 부르면서 물었다. “‘완전한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까? 여기 단 위로 올라오시겠습니까? 조지 형제님과 루트 자매님, 폴 형제님, 매튜 형제님과 조안 자매님, 존 형제님과 헬렌 자매님, 벤 형제님과 캐롤 자매님 부부도 함께 올라오시겠습니까?”

그는 각 사람의 이름을 천천히 간격을 두며 불렀다. 손을 내리는 사람이 늘어났다. 몇몇 사람만이 손을 높이 들고 있었다. “미망인 중에 ‘완전한 하루’를 살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하고 감독님이 물었다. 그가 회중을 둘러보는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레이스 자매님, 어떻습니까?”

이름을 부른 사람들이 단 위로 올라오자, 감독님은 그들에게로 돌아섰다. “어느 날을 완전한 하루로 보내시겠습니까? 화요일이요? 목요일이요?”

그들의 얼굴에 비친 멧웃은 미소는 그들 중 아무도 정말로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어떤 사람은 그러겠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사람은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잠시 후 어떤 사람이 준비할 시간을 더 갖기 위해 목요일로 하겠다고 말했다.

감독님은 웃으면서 말했다. “좋습니다. 목요일을 ‘완전한 하루’로 생활하십시오. 다음 주 성찬식에서 말씀하실 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완전한 하루’를 보내신 여러분의 보고를 듣고 싶습니다.”

감독님은 다시 회중을 보고 물었다. “여러분 중에 또 ‘완전한 하루’를 보내실 분 안 계십니까?” 교사 정원희 회원인 제임즈 형제가 기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그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나서 감독님은 회중에게 말씀하셨다. “와드 회원으로서 여러분의 책임은 이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완전하게 사는 방법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루를 완전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은 감독님의 권고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는 질문이었다. 일주일 내내 와드 회원들은 모이기만 하면 “완전한 하루”에 대한 감독님의 권고가 대화의 주제였다. 우리는 그 보고를 무척 듣고 싶어했다.

드디어 일요일이 왔다.

짧은 갈색 머리에 반짝이는 눈을 가진 미망인인 그레이스 자매가 첫번째 연사였다. 그녀는 하루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녀는 그날 아침 심한 감기 기운을 갖고 깨어났다. 3년 동안 한 번도 아픈 일이 없었던 그녀는 그날의 계획을 수정하여 오랫동안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어머니의 생애에 대한 기억의 책을 정리해야겠다고 결정했다. 그레이스 자매는 동생의 도움을 받아 사진과 기사로 어머니의 생애를 다시 정리하는 일을 했다. 그 일은 하루 종일 걸렸지만, 그 결과 소중한 기억의 책을 만들 수 있었다.

그레이스 자매는 그날의 활동이 그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었음을 발견했다. 그녀가 받은 축복사의 축복문은 그녀가 가족 역사에 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써여 있었다. “나는 가족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흥미를 가질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어머니에 관한 책을 정리하고 난 후, 나는 세상을 떠난 남편에 관한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후로 그녀는 남편과 아들과 딸의 역사를 편찬했다. “나는 오랜 동안 간직해 온 귀중품 상자, 기념물 상자 등을 청소하면서 여러 조상을 위해 성전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나의 일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 일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하고 그녀가 말했다.

그날 제임즈가 세운 목표는 달랐다. 부모에게 순종하되 하라고 하는 일을 즉시 즐겁게 할 것을 계획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친구가 놀러 오거나 가장 재미있게 책을 읽고 있을 때는 언제나 어머니가 꼭 무엇인가를 시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 나는 일을 멈추고 지금 곧 하라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

그레이스 자매는

동생의 도움을 받아 사진과 기사로 어머니의 생애를 다시 정리하는 일을 했다. 그 일은 하루 종일 걸렸지만, 그 결과 소중한 기억의 책을 만들 수 있었다.

쫘에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을 곧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하고 말을 마쳤습니다.

그날의 기쁨을 조성함

유쾌한 유우머 기질을 가진 15세된 폴 형제는 감독님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경전을 매일 공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경전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했다. “그날 경전 읽기가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중요했습니다.”하고 설명했다. “수요일 밤에는 다음 날 늦잠을 잘까봐 여러 차례 깨어났습니다. 드디어 자명종이 울리자 나는 물론경부터 집어 들었습니다.”

그는 경전을 45분간 읽었다. “경전을 읽는 것은 그날의 기쁨을 조성하는 것 같았습니다.”하고 그는 말했다. “학교 친구, 선생님, 가족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며 나의 ‘완전한 하루’도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약간의 실수도 범했지만 다른 날 보다는 훨씬 잘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내가 나의 축복과 해야할 일과 나의 잘못에 관해 더 잘 알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그날,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자주 생각해 보았습니다.”하고 그는 덧붙였다.

“더 나아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감독님의 권고를 받아들인 다른 사람들도 했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가운데 그 답을 알 수 있었다.

조지 형제는 “완전한 하루”를 사는 것이 큰 과제임을 알게 되었다. “비록 내가 원했던 대로 그날을 보내지는 못했지만, 그날은 내 생활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이전에는 ‘완전한 하루’를 살아보겠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었습니다.”하고 그는 말했다.

조지 형제의 부인인 릭 자매는 “완전한 하루”의 결과로 부부 관계가 개선된 것을 경험했다. “하루를 완전하게 보내려고 노력함으로써 나는 습관이 된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찮고 중요하지 않은 이유로 남편에게 잡자기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중입니다.”

결점을 깨닫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감독님의 권고를 받아들인 사람이 하려 했던 일이었다. 래리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많은 귀환 선교사들처럼 나는 공부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항상 무엇인가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았어요. 감독님으로부터 이 과제를 부여받았을 때 나는 내가 선교사 매처럼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일들은 래리 형제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치통이 “완전한 하루”를 망쳐버린 것이다. “그러나 나의 하루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하고 그가 말했다.

존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있어서는 아내 때문에 매일 매일이 완전한 하루입니다. 그녀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완전한 하루’는 그녀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있음을 기뻐하며,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경전 공부를 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합니다. 직장은 다르지만 정신적으로는 하루 종일 함께 지냅니다. 우리는 서로 도시락에 사랑을 표현하는 쪽지를 써 넣음으로써 상대를 놀라게 해 줍니다.

“일이 끝나고 나면 집에 와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잔일을 나누어 한 뒤 서로 하루의 활동을 이야기하고 토론한 후 다음날을 계획합니다. 매주 우리에게 특별한 활동은 성전에 참석하는 일이며, 이번 주에 우리는 ‘완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의식을 할 때 제단에 함께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우리의 결혼 성약을 새롭게 하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주님의 집에서 봉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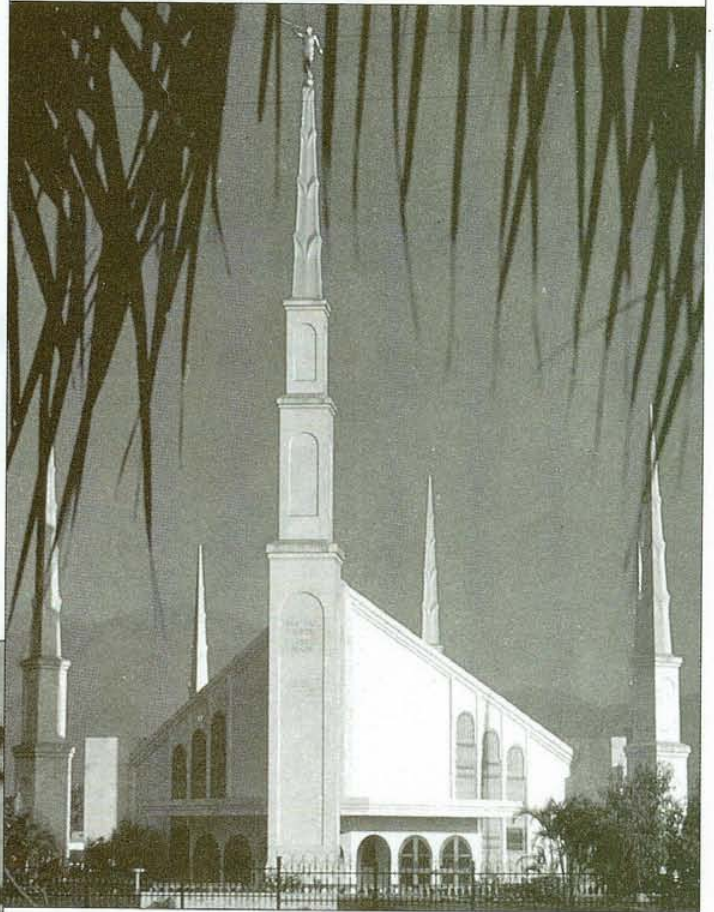
벤과 캐롤 부부에게는 “완전한 하루”에서 성전 사업이 큰 특징이었다. 벤이 이 년 전쯤 은퇴했을 때 그들 부부는 성전 봉사자로서의 부름을 받아들였다. “감독님께서 지명하신 ‘완전한 하루’는 마침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들 가운데 하루였습니다.

“성전에서 팀 책임자로 봉사하는 나는 교회에서 기도를 드리는 형제가 나를 팀 책임자로서 주님께서 지켜 주시고 그날 하루를 특별한 날로 축복해 주실 것을 간구했을 때 참으로 감명받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완전한 하루’를 지명받은 것을

모르고 있었지만 그의 기도는 내게 매우 의미있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하루’를 위해서 있어야 할 곳으로는 얼마나 특별한 장소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훌륭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해의 왕국에 이르는 길에 서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매튜 형제는 회중에게 “완전한 하루”에 관해 가족이 토론한



“**완**전한 하루”를 살려고 노력하는 일은 신앙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뜻밖의 즐거움을 안겨줄 수도 있다. 한 젊은 어머니는 자신이 “완전한 날”로 정한 날에 팬케익을 만들다가 전기 믹서가 팬케익을 온통 홀뜨려 뿌리는 바람에 아들에게도 튀었다고 말했다. “다른 날 같았으면 집안이 그렇게 어수선하게 된 것을 보고 매우 짜증을 냈을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 우리는 웃음을 터뜨리면서 재미있는 시간으로 보냈어요.”



경전을 읽는 것은
그날의 기풍을 조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과를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자신을 완전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몇 달 동안 아내가 병들어 있게 되자 그것이 온 가족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더욱 주님께 의지하게 되었으며 매일 그의 인도를 구하고 신권의 권세를 더욱 잘 인식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하루’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를 돕고 우리가 받는 축복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완전한 하루”에 대한 지명을 받은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난 뒤, 나는 감독님에게 그러한 과제를 준 이유를 물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항상 ‘완전한 하루’를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해 왔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이고 이상적인 것에 집중할 수 없을 만큼 일상 생활에서 외부의 영향과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완전한 하루’, 또는 완전한 삶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와드 회원이 시도해 보아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상황에 관계없이 좀더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참여했던 와드 회원 가운데 돈을 투자해야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자신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과제를 실천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와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하루’를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더욱 더 잘 알게 되고,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더욱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감독님의 권유가 우리 삶에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는 길, 즉 우리 모두가 성취하기를 바라는 길을 따라 가도록 도움을 주었다. *

브랜다 블록섬 힌트는 가정 주부로서 솔트레이크 웰즈 스테이크 벨비디어 와드에 살고 있다.

천사의 수종을 받음

바바라 더블류 윈더
상호부조회 본부 회장

주님께서는 말일성도 여성들에게 우리가 돌보고 봉사하고 양육하도록
맡겨진 사람들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1988년 4월 연차 대회의 신권 대회에서 십이사도 평의회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는 여성을 “인간성의
풍요로움”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는 여성의 독특한 은사와
“여왕같은 자질”에 대해 찬사를 보냈으며 “어머니로서의 임무”에
천사가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요셉의 말처럼 “그들의 본성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에 따라” 행동하는 말일성도 여성으로서, 우리는
어머니의 역할이란 신성한 책임임을 깨닫게 됩니다. 때때로 다른
의무가 우리의 주의를 필요로 하지만 우리는 결코 어린이를
양육하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의 잠재 능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여성은 이 일을 곁에 있는 의로운 남편과 함께, 또는 편부모로서,
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독신이지만 다른 여성의 자녀를
가르치고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해낼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문화권에서 자녀에 대한 어머니와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느낌이 똑같다는 사실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들이 사는
상황, 즉 부유하든 가난하든 교육의 기회가 있든 없든 느끼는
바는 대개 똑같습니다. 어머니들은 자녀의 복지를 위해 무슨
일이든 다 합니다.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모든 곳에 적용되는, 어머니 또는 어머니로서의 전형적인 예가
머리속에 떠오릅니다. 페루의 리마에서 한 어머니가 네 아들과 두
딸이 함께 찍은 사진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커다란 공지를
갖고 그녀는 나에게 그들이 성취한 것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고등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자녀는 모두 그녀의 노력과 결심 덕분에 대학에 갔습니다. 그녀가
자녀를 위해 갖고 있는 목표는 물질적인 목표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자신을 바치도록 훈련시키고

교회와 사회에서 공헌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토록 급속한
비율로 교회에 들어오는 새로운 회원의 수가 많은 그 나라에서,
이 자녀들은 모두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눈에 띄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나는 외딴 변방에 있는 작은 지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회원들은 조그만 수상 가옥에 모였습니다. 한 연로한
여성이 그곳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머니이자 할머니인
듯이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얹어 벽에다 기대어 놓은 칠판에
그녀는 공과와 요점을 보기 좋게 적었습니다. 공과가 끝난 뒤,
그녀는 나에게 자신이 가족과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은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듭해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사랑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자녀의 필요 사항을 늘 파악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자녀와 함께 활동하고 배움으로써 생활
가운데서 자녀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일본의 히로시마를 방문했을 때 곧 집사가 될 열한 살의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스테이크 대회에서 말씀을 하도록
부탁받았습니다. 매우 두려워했지만 그는 쉽게 성구를
인용했으며 힘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청중 가운데서 어느 얼굴이
그의 어머니의 얼굴인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나는 내가 오랫동안 사귀어 오고 존경해 온 대가족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나는 그녀의 자녀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교육, 선교 사업, 성전 결혼 등이 그들의
계획 속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그렇게 성공한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겸손하게도, 그녀는 아직 성공이
성취된 것은 아니며 인생은 끊임없는 시험과 도전의 연속이라고

음향 울루수 의사총 여성이 인류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사심없는 봉사를 통해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나타낼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유대를 가까이 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 각자가 성실과 존경으로 대우받을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각자의 능력과 재능은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결혼을 한 이후에도) 정규적으로 가정의 밤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교육과 가르침을 위해 연차 대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목적으로 가족 대회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가족 안에 사랑을 크게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올해의 어머니와 올해의 젊은 어머니로 국가에서 수여하는 상을 받을 사람으로 고려되었던 미국에서의 열 명의 말일성도 여성도 똑같은 각오를 나타냈습니다. 이들 각자는 인격을 도야하는 것으로서 조건없는 사랑과 일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웃음, 노래, 입맞춤, 칭찬,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 등이 지닌 덕성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어린이의 신앙, 배움의 기적, 상담의 기회, 발견의 기쁨, 성장의 가능성, 꿈의 성취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을 기뻐합니다.

말일성도 여성이 특별한 상을 받는 수상자로 뽑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대관장단의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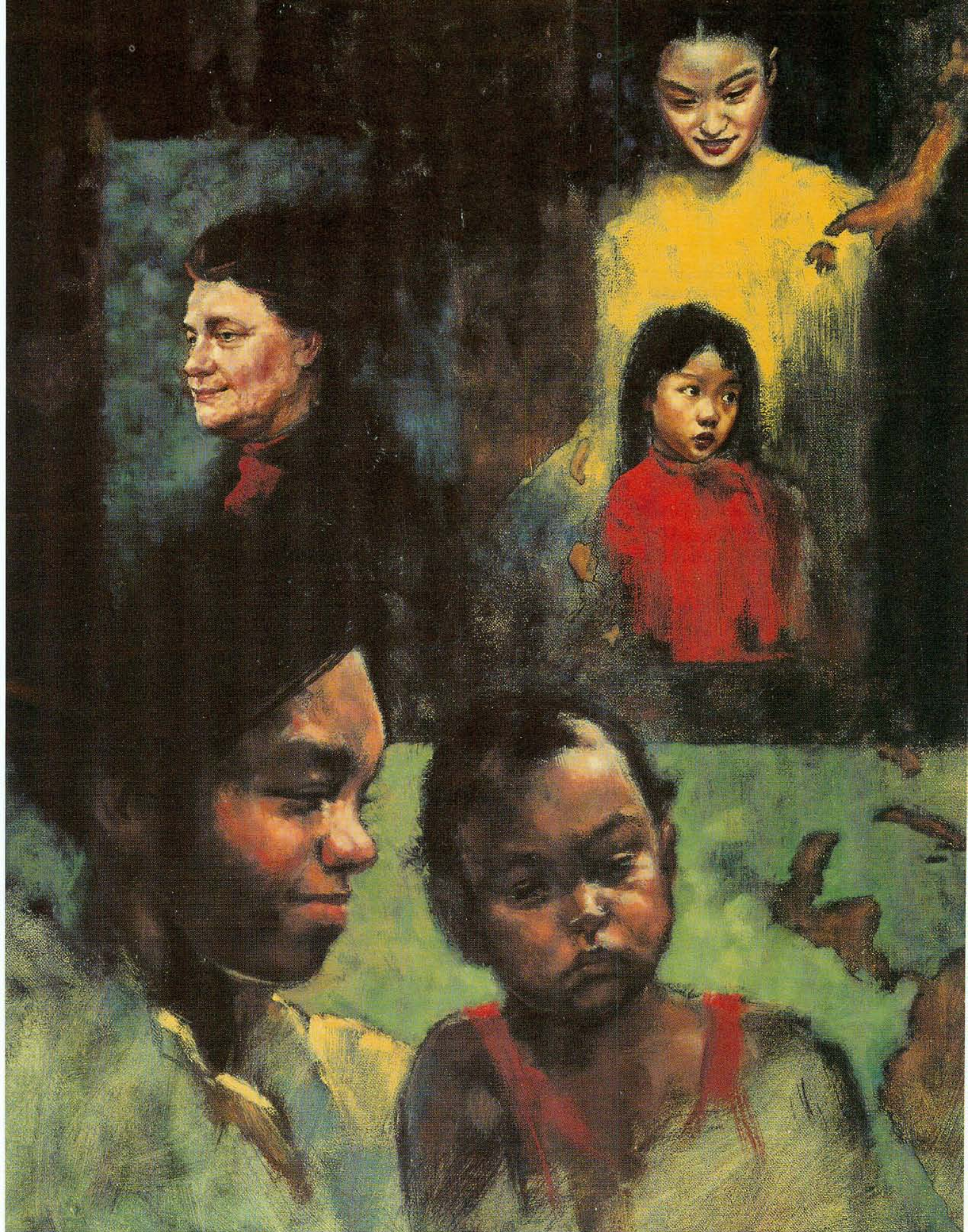
“교회는 시온의 딸을 훈련시키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여성의 가장 위대한 사명은 영예롭고 행복하게 결혼하여 영예롭고 행복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역할과 양육하는 일을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활동과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에서도, 결혼과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훌륭하고 능력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서로 조화시키며 일치시킬 막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녀를 갖지 못한 많은 여성들은 다른 사람의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금식과 기도에 대한 나의 첫번째 교훈은 이러한 경험을 내 생애에 적용하도록 도와 준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여성이 인류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사심없는 봉사를 통해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나타낼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성이 지닌 많은 재능과 성품을 알게 될수록 나는 이 경륜의 시대에 그들의 힘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친구와 가족으로서 돌보아 줌으로써 우리 모두가 겪는 인생의 시련을 견디어 내도록 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행하도록 우리가 받은 기회는 얼마나 훌륭한 것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우리가 돌보고 봉사하고 양육하도록 맡겨진 사람들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갖지 못한 자들도 돌보고 양육하는 사람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가족이 많든 적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는 “어머니의 역할”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



성도들과 함께 울 때

글렌 엘 페이스 감독
관리 감독단 제2보좌

나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을 얻는 방법을 알려 주는 복음의 회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몇 년 전에 나는 “성도와 함께 울기 보다는 죄인과 더불어 웃겠다”는 가사가 담긴 유행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노래에 대한 나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다음날 그 노래를 다시 들었을 때 나는 내가 왜 그 가사에 그토록 화를 냈는지 알게 되었을 때 웃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었을 때, 나의 부모님은 일요일에 다른 아이들은 영화를 보러 가는데 나에게는 교회에 가도록 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다른 아이들은 점심 때까지 자는데 나는 금식 현물을 거두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나는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식료품점에서 두 배로 지불해 주는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그대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선교 사업을 할 때 나는 동반자와 함께 토요일 저녁에 거리를 걸으며, 같은 또래의 다른 친구들이 차를 몰고 여자 친구와 함께 우리 곁을 지나며 웃고 손가락질하면서 “저 친구들은 대체 누구야?”하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 나와 아내는 잠시도 가만 있지 않는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일년중 가장 큰 프로 미식 축구 결승전이 열리는 일요일인 슈퍼 볼 선데이엔 온 세상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동안, 우리는 아이들에게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격려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오래되고 낡은 차로 여행을 할 때면 우리는 호화로운 자가용 뒤를 따라 달리곤 했습니다. 그 차에 있는 최신 유행 웃을 입을 아이들이 할인 판매장에서 산 현 웃을 입을 우리 여섯 명의 아이들을 멸시하는 투로 쳐다보곤 했습니다.

내가 가장 큰 불만을 느낀 것은 작년에 대학에 다니는 자녀의 권유로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열리는 연주회에 참석하여 어느 가수의 다음과 같은 가사가 담긴 노래를 듣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나는 아무도 개심시키려 하지 않겠어요. 다만 당신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고 싶어요.” 나는 무대로 뛰어 올라가 마이크를 빼앗아 잡고 그 주제에 관한 나의 의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무척 당황해 할까봐 자제했습니다.

“죄인은 웃고 성도는 운다”는 말은 인생을 너무 단순하게

단정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사실을 무시합니다. 어떤 죄인들은 깨어진 삶과 많은 눈물을 남기고 우리 말일성도들은 웃음을 나눕니다.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죄인들에게도, 인생에서 의미있는 모든 것이 반드시 재미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교회 표준에 따라 살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이 표준대로 사는 사람보다 인생을 더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말일성도로서 우리의 삶은 계명과 기대와 봉사, 희생 및 재정적인 의무로 통제받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소위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 즉 월요일 저녁이 아닌 다른 날도

가족과 함께 집에 있고 총수입의 10~15퍼센트를 더 지출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말일성도가 교회에서의 우리의 재정적인 의무를 다할 때 우리는 어떤 잘못도 저지를 여유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정직합시다. 성도들은 무수히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값진 것은 쉽사리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해의 영광의 행복은 노력없이 오지 않습니다.

시련 가운데에서

때때로 우리는 시련 가운데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이런 고난을 겪는가? 시련이 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인가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승영으로 인도해 주는 정결하고 성결한 상태에 이르러자 노력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영이 변화되려면 어느 정도의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요셉 스미스의 생애가 이 원리를 잘 나타내 줍니다. 그의 생애에서 리버티 감옥에 갇혀 있던 1838~39년 사이의 겨울보다 더욱 어두웠던 시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박해를 당하고 약탈과 죽임을 당했으며, 교회 내에서는 분열과 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고통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감옥 내부의 추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가 겪은 절망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아버지와 구세주께서

때 때로 우리는

시련 가운데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이런 고난을 겪는가?”

시련이 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인가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문하신 일과 모로나이, 침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및 다른 많은 하늘의 천사의 방문을 받은 일을 기억함으로써 고뇌를 덜어 버릴 수 있었으리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러한 지식이 고통을 가중시켰는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는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외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였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당신께서 숨으신 곳을 가린 큰 휘장이 어디 있나이까?”(교성 121:1)

이 고통스러운 간구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나의 아들이야, 평안할지어다. 네 불행, 네 곤고는 잠시 동안이니”(교성 121:7) 주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야 이 모든 일이 네게 경험이 되고 네게 유익이 되는 줄 알지어다.”(교성 122:7)

“네게 유익이 되는 줄을 알지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전 총관리 역원이었던 비 에이지 로버츠는 1842년에 있었던 비슷한 경험에 대한 요셉의 반응을 설명하면서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 잘 설명했습니다.

“인생에서의 시련은 사람의 영혼을 강박하게 하거나 상처입히지 않을 경우 늘 유익한 것이다. 예언자는 시련 속에서 매일 더욱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동정심이 더욱 넓어졌으며, 영적인 경지 역시 더욱 심오해졌다. 하나님의 영감이 이 사람에게 영적인 깨우침을 준다는 사실을 읽고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요셉 스미스, *교회사*, 7권,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레트 출판사, 1978년, 5권, 28페이지)

주님께서 요셉에게 “이 모든 일은 네게 경험이 되고 네게 유익이 되는 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모든 자보다 몸을 낮추었나니, 너는 저보다 크뇨?”(교성 122:8)

구세주께서 갯세마네에서 고통을 당하신 이유의 일부는 우리가 시련과 환란을 겪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갯세마네에서의 고통을 통해 구세주께서는 완전하신 재판관으로서 자격을 갖추신 것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심판날에 그에게 다가가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통이 어떠하였는지 모르십니다.” 그분은 “모든 자보다 낮게 몸을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시련의 본질에 대해 잘 아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이 갯세마네 동산에서 고통 당하는 것을 바라보실 때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태복음 26:39)

아들의 요청을 거절해야 했을 때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구세주를 십자가에 그대로 두시고 그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가복음 15:34)하는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께서 흘리신 그 거룩한 눈물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을 흘리실 때에도 죄인들은 웃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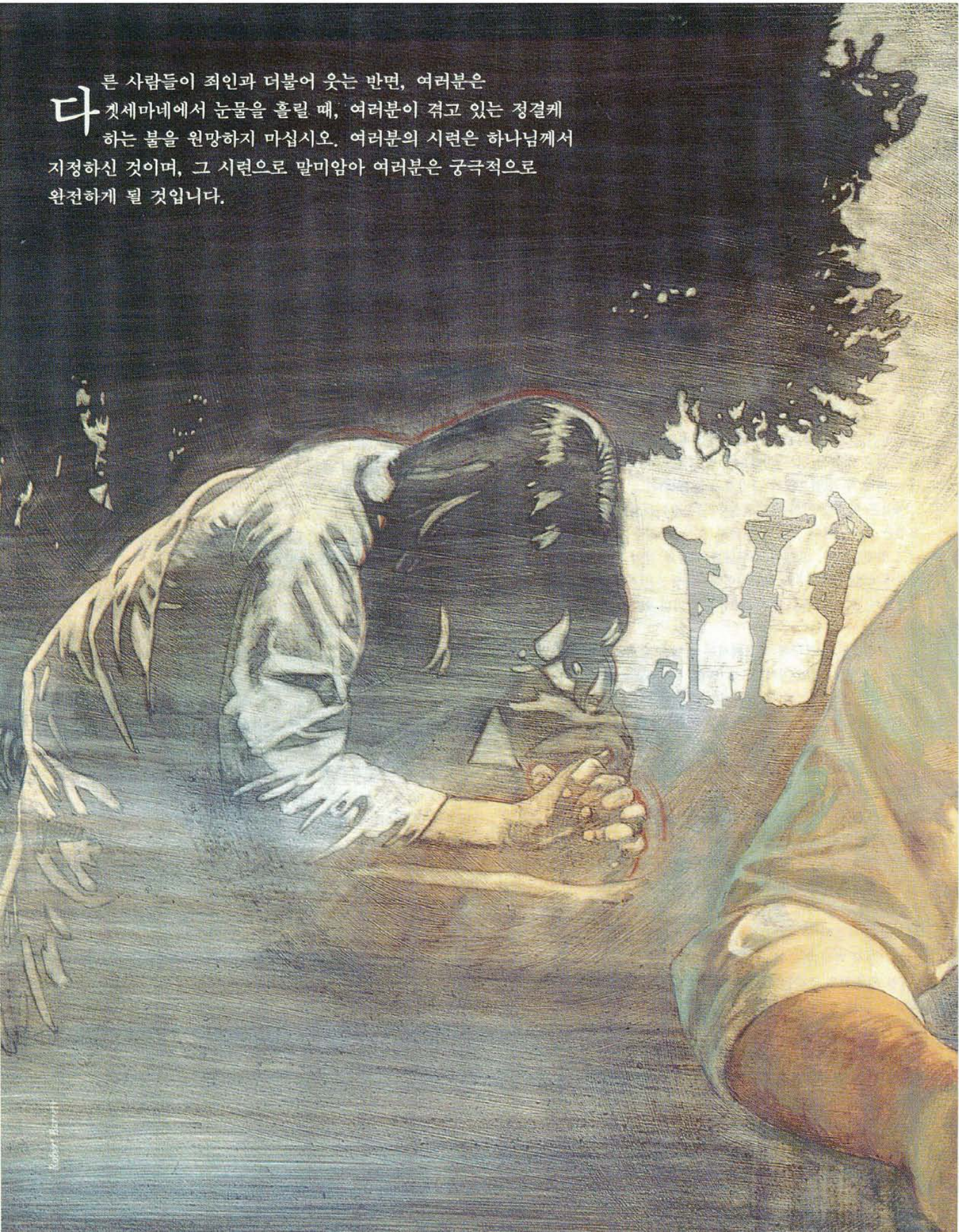
우리 자신의 갯세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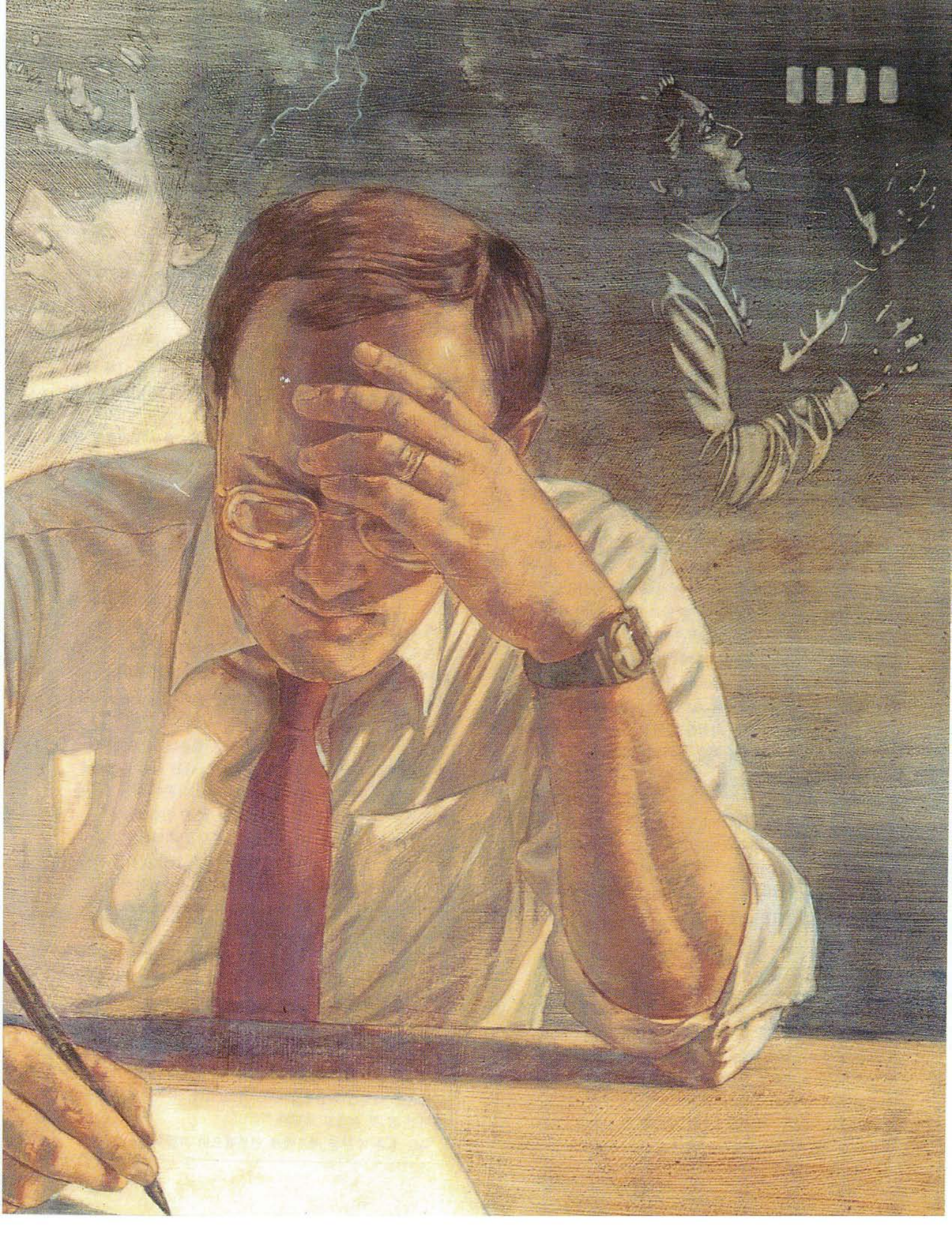
우리는 모두 자신의 최종적인 시험, 즉 갯세마네를 통과해야 합니다. 성도나 죄인에게 자녀의 죽음보다 더 큰 갯세마네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한 아버지는 열 살된 딸이 사고로 죽은 사실을 안 직후, 그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홀륭한 아버지의 갯세마네가 복음에 대한 그의 지식과 보혜사로부터 받은 은사로 인해 어떻게 성결케 되는 경험이 되었는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빛이 없었을 경우에 보였을 그의 반응과는 대조가 됩니다. (그의 허락을 받고 그가 쓴 편지를 인용합니다.)

“네가 들을 수 있다면 이 글은 네 아빠나 엄마가 기쁘거나 슬플 때 표현하고 싶은 네 아빠의 생각이란다.

“너는 우리 가정에 빛의 천사와도 같았다. 세상을 떠날 때에도

다 른 사람들이 죄인과 더불어 웃는 반면, 여러분은
갓세마네에서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정결케
하는 불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이며,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복음이 주는 기쁨을 맛보게 되면,

다시는 하찮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이 일시적인 작별의 감미로운 슬픔을 줌으로써 그 경험을 성결케 해 주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호텔 방에서 나는 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야말로 네가 참으로 본향으로 갔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네가 것처럼 신체적 제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며 불평하지 않는 태도로 산 네 모습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다.

“엄마와 나, 그리고 네 일곱 명의 형제 자매들은 네가 우리 가정에 옴으로써 더욱 훌륭해졌다. 네가 태어난 직후, 너는 특별한 치료에 의한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모르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도와 주었으며 신체적, 정서적 또 정신적 장애를 가진 다른 사람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했고, 이제는 네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간구하게 했었다. 네가 자라면서 우리는 네게 결심을 실천하는 법을 배웠다. 너는 우유를 마실 때 결코 흘리지 않았다. 일년 동안 철자에서 평균 97점이었으며 결심을 굳히며 수학을 공부했다. 또 네 엄마와 함께 매일 저녁 책임기를 아무런 불평도 없이 해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 네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 주었지만 우리가 너에게서 배운 것은 표현하기에 너무나 신성하기 때문에 글로 쓸 수도 없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지상에 잠시 머물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너와 함께 만나기에 합당하게 되어 너의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네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지 모른다. 늘 네가 말했듯이, ‘사랑해요!’라는 말을 네게서 얼마나 듣고 싶은지 모른다. 힘찬 포옹의 감격을 느끼고 싶구나. 오늘은 더욱 더 그렇다.”

정결케 하는 불

다른 사람들이 죄인과 더불어 웃는 반면 여러분은 깃세마네에서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정결케 하는 불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이며,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말일성도들은 세상에서 유쾌하지 못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픔과 고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련과 환란이 모든 자에게 오며 그것이 우리를 성결케

하며 승영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줌을 깨닫습니다.

나는 슬픔과 고통의 눈물에 대해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다른 종류의 눈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눈물은 성도들의 전유물이며 죄인이 흘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 장원회 회장단에 있을 때 우리는 활동이 저조한 몇몇 가족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부부와 개인 접견을 할 때 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 성전에 가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대답은 도무지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그들은 스테이크 대회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 그들의 “개종”에 관해 말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들이 지닌 사랑을 표현했을 때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우리가 성전에 갈 무렵, 즉 그들의 아름다운 딸들이 제단에 무릎을 꿇고 헌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되는 것을 볼 무렵에는 눈물을 모두 흘려 버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리 감독단에 부름을 받고난 뒤 나는 삼촌 한 분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글렌에게, 나는 지난 일요일에 텔레비전에서 너를 보았다. 죄인이었던 네 삼촌이 연차 대회를 지켜 보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너는 알 수 있겠느냐?”

그해 여름에 삼촌과 숙모는 결혼 50주년을 기념하는 식을 가졌습니다. 금혼식이 끝난 뒤 그들을 차가 있는 곳까지 모셔다 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저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면 제가 기꺼이 인봉 의식을 집행해 드리겠습니다.”

일년 후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자 다음과 같은 소식이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귀가 시간이 언제가 되든 삼촌에게 전화하세요.”

전화를 걸자 삼촌이 말했습니다. “글렌, 금혼식때 네가 제안했던 것처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인봉을 하고 싶구나.”

“정말이십니까? 언제요?”하고 내가 물었습니다.

삼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2월이다. 감독님께서 그때쯤이면 될 것 같다고 하신다.”

나는 삼촌 부부를 서로에게 인봉했으며 그들의 두 아들도

그들에게 인봉했습니다. 결혼한 지 51년째 해에 삼촌은 성전에서 큰 축복을 받았으며 전 가족이 다 울었습니다.

대관장께서 우심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께서 얼마 동안 편찮으신 뒤 어느 날 월례 성전 모임에서 교회 총관리 역원 앞에 다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2개월 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대관장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신 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다시 함께 하니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는 우셨습니다.

구세주께서 니파이 백성을 방문하셨을 때 그 마지막 순간이 오자, 그는 백성들의 사랑과 신앙을 느끼고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그는 곧 자신이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사람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눈에 눈물을 머금고 조금이라도 예수가 저들과 함께 더 머물어 주시기를 바라는 기색을 보시고, “우리에게 이르시되, 보라 나의 가슴은 너희를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니파이삼서 17:5~6)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서는 병자를 고치셨으며 고침을 받은 자들은 “발아래 엎드려 절하며 예수를 경배하였고...그 발이 눈물로 젖기운 바”(니파이삼서 17:10)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라 명하시니, “저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려와 그 둘레에 앉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신앙을 가졌으며 복되도다. 보라 나의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같이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우시니, ...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차례대로 저들을 축복하시며 아버지께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시었고,

“이같이 행하시고 나서 또 다시 우시더라.”(니파이삼서 17:11~12, 20~22)

브로스 알 맥콩기 장로는 별세하기 몇 주 전 연차 대회에서 눈물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들어본 가장 힘찬 간증의 하나인 그의 간증에서, 이 육신의 생활의 종말이 가까운 것을 분명하고도 완전하게 안 그 특별한 증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간증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나는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장차 그의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 보고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게 될 것입니다.”(성도의 벗, 1985년 7월호, 13페이지)

그처럼 위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목격한 우리들은 단상에 서 있던 맥콩기 장로께서 그러한 눈물을 흘리셨음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그를 기다리는 축복을 고대하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맥콩기 장로가 말씀을 하기 하루 전, 나는 관리 감독단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씀이 끝난 다음 날인 부활절 아침 오전 다섯 시에 나는 그날 오후에 전할 말씀을 적고 있었습니다. 맥콩기 장로의 아름다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볼 때 나는 자신의 약점과 부적합함에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생애에 어떤 일이 있어 왔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의심은 화평과 자신감과 영원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나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다음과 같은 말을 적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의 속죄가 나에게 가져다 준 변화를 사랑합니다. ...나는 한때 암흑 속에 빠져 있었으나 지금은 빛을 보고 있습니다. 한때 나는 자신감을 잃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압니다. 나는 한때 부끄러움을 느꼈으나 지금은 주님께서 “내 육신을 불사를 만한 사랑으로”(니이 4:21) 채워 주셨으며, ‘영원토록 내가 주님의 사랑의 품에’(니이 1:15) 안겼습니다.”(성도의 벗, 1985년 7월호, 87페이지)

나는 그 부활 주일에 느꼈던 것과 똑같은 느낌을 지금도 느낍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성도와 함께 울기보다는 죄인과 더불어 웃겠습니까? 한 순간도 그럴 수 없습니다. 일단 복음이 주는 기쁨을 맛보게 되면, 다시는 하찮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도해 보고, 또한 세상 어느 곳을 가더라도 세상이 주는 웃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빈 자리가 있습니다. 그 빈 자리는 오직 우리 자신을 영원한 진리에 조화시키며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생활함으로써만 채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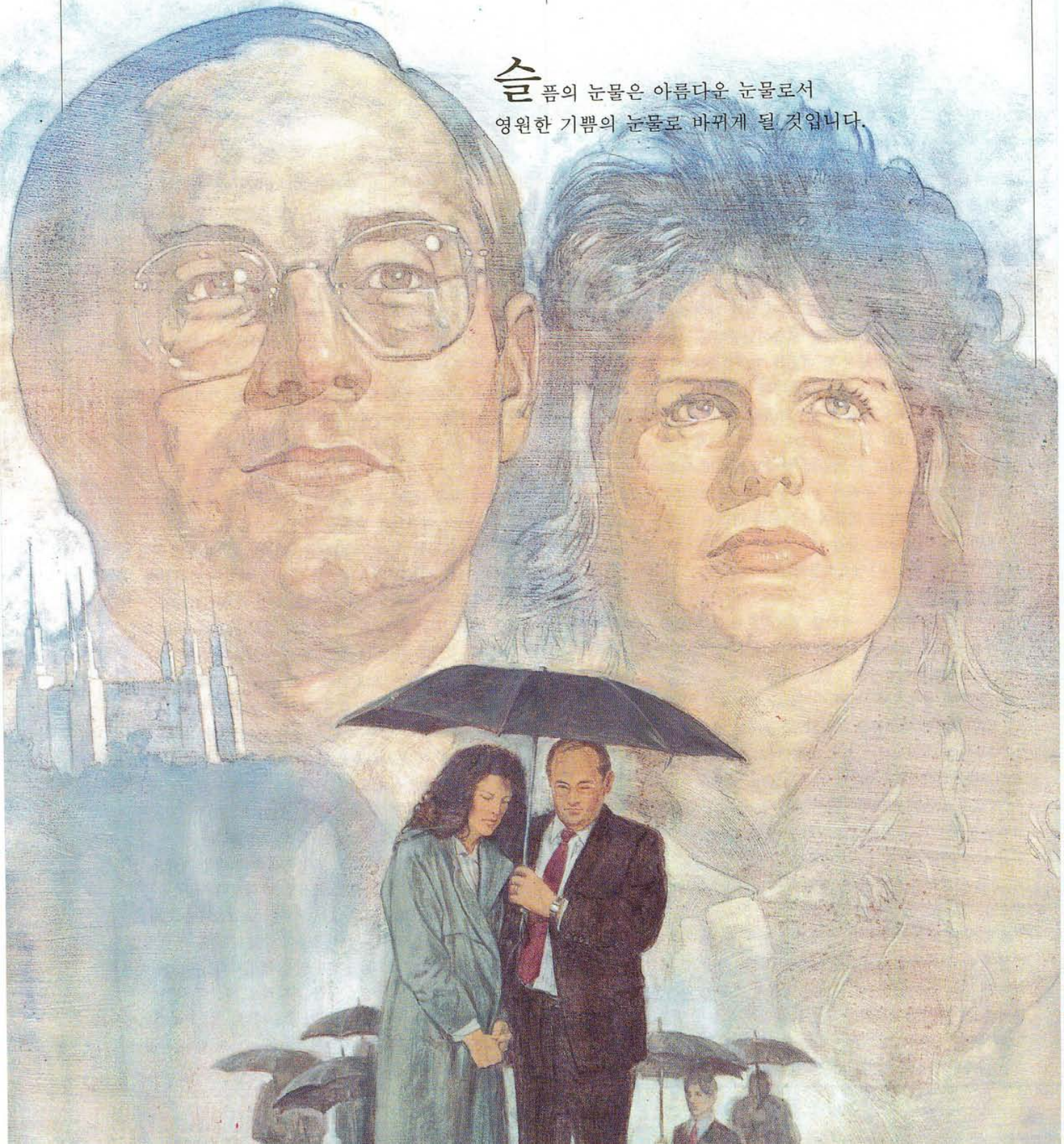
이해력이 증진되면서, 우리는 그러한 슬픔의 눈물은 아름다운 눈물이며, 그 눈물은 영원한 기쁨의 눈물로 바뀌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참된 기쁨을 거의 모릅니다. 나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을 얻는 방법을 알려 주는 복음의 회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성도들과 함께 우는 일이 참으로 훌륭한 일임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

(유타주 프로보,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행하신 말씀)

슬픔의 눈물은 아름다운 눈물로서
영원한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성취된 축복

스텐튼 맥도널드 나는 의사로서 죽음에 임박한 많은 환자들을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 가운데 칼과 로라 해밀톤의 경우처럼 나에게 감동을 준 일은 거의 없었다.



시간이 흘렀으나

로라는 의식없이 누워 있었다.

칼은 언제나 아내 곁에서 그녀를 돌봐 주었다.
그러한 스트레스는 가끔 사람의 성품에 최악의 상태를
가져 오기도 한다. 그러나 칼은 언제나 친절했으며
불친절한 인사나 불평의 말을 하는 일이 없었다.

예순 둘의 나이인 로라는 여러 해 동안 병들어 있었다. 당뇨병
거의 시력을 잃은 그녀는 관절염과 만성 심장 및 폐질환을 앓고
있었다. 그녀는 병약하고 지치고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다.

그러나 남편인 칼은 로라의 병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칼은 건강하고 튼튼했다. 그는 나이보다 10년은 젊어 보였으며
아직도 힘든 농장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알게 된
지 이 년이 되었지만 그는 아내의 건강과 행복만을 늘 염두에
두었다.

로라를 돌보는 일은 늘 곁에 사람이 있어야 하는 힘든
일이었다. 칼은 그 대부분의 일을 스스로 했으며 언제나 유쾌하고
열의있게 해냈다. 지금은 모두 결혼을 한 그의 자녀들도 도움을
주었다. 집에서 로라가 받는 간호는 때로 병원에서 받는 것보다
더 나았다.

이 년 동안 로라는 네 번이나 입원을 했으며 그것도 매번 장기
입원이었다. 칼은 늘 그녀 곁에 있었으며, 그녀 곁에 있는 의자나
조그만 긴 의자에서 잠을 잤다. 그는 자녀가 그 자리에 있을
때에만 식사를 하러 자리를 비울 뿐이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나는 그가 간호원이나 병원 종사자나 기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일이 없다. 칼은 늘 우리를
칭찬하고 감사를 표시했다.

드디어 로라가 심장 발작을 일으켰을 때 칼은 절망했다. 그는
결코 아내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로라는 의식을 잃고 누워 있을
때 신권 축복을 받았다. 놀라운 것은 모든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리라는 약속이었다. 그 축복 때문에 우리도 그녀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시간이 흘렀으나 로라는 의식없이 누워 있었다. 칼은 병원을
떠나지 않고 아내 곁에 있었지만, 하루 하루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고뇌가 쌓여 갔으며 실망의 빛이 나돌았다. 그가 너무나
여위고 피곤해 보였으므로, 혹시 오랫동안 식사를 안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는 여기 저기서 잠깐씩 눈을 붙였다.
로라가 거칠게 호흡을 하다 어떤 변화라도 보이면 벌떡 일어나
그녀를 살펴보았다.

그러한 스트레스는 가끔 사람의 성품에 최악의 상태를 가져
오기도 한다. 그러나 칼은 언제나 친절했다. 이 젊잖은 사람은
슬픔 중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다.

칼과 로라가 떠나간 어느 토요일에 나는 사무실로 돌아가
의자에 깊이 파묻혀 앉았다. 칼이 겪는 고통과 슬픔을 생각할 때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머리를 숙이고 로라의
의사로서 도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도를 드렸다. 내가 아직도 하지 않은 어떤 일이 있는가?
로라의 신권 축복에 대해 물어 보았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신권 소유자는 그가 말한 것에 대해 참으로 영감을 받은 것일까?

그때 내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로라가 모든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음 세상으로 옮겨 가는
일이었다. 전에도 이 생각을 했으며 칼에게도 그것을 알렸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커다란 기쁨이 수반되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모든 기능이 회복된 아름답고 매력적인 로라를 볼 수 있었다.⁴

나의 슬픔은 이제 사라졌다. 나는 성신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분명한 기쁨과 평화를 느꼈다.

나는 마음에 평화를 느끼며 사무실을 나왔다. 몇 시간 후에
로라는 조용하고 평화롭게 운명했으며, 칼은 오랫동안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모범으로 사랑과 희생의 참 의미를 가르쳐 준 칼에게
감사드린다. 나는 또한 낙담하고 신앙을 불안케 하는 일이
감미롭고 신앙을 굳건케 하는 경험으로 변화시키게 한 개인적인
게시가 보여 준 기적에 대해 주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
스탠튼 맥도널드는 히버 유타 이스트 스테이크 구역에 사는 의사다.

관 용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시작

앤 앤 맨슨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게 하려면 우리가 서로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의 하나는 아버지께 관한 것인데,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심으로써 가족간의 논쟁을 잠잠케 하시는, 화평케 하는 분이었습니다. “관용을 가져라. 우리 각자는 독특하다. 사람은 각자 다르지만,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야.”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명심함으로써 사람들의 차이점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확신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은 나의 아버지가 가르치신 원리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비판으로 가득 찬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비판하거나, 많은 훈련이 필요한 어떤 일에 반대하기는 쉽습니다. ...진리의 적은 우리를 분열시키며, 비평의 태도를 길러 줍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목표를 추구하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됩니다.”(연차 대회, 1982년 4월)

세상에서 매일 비평과 적대감에 당면하게 되는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합니까? 자신의 생활에서 매일 겪는 갈등과 실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나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신앙개조에 있는 두 가지 말씀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신앙개조 제11조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양심의 지시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또 사람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어디서나 어느 모양으로나 혹은 무엇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똑같은 특권이 허용됨을 주장한다.”

“사람마다...똑같은 특권이 허용됨”이란 표현은 물론 종교적인 관용을 나타냅니다. 나는 이것이 복음의 원리로서 나의 부친이 내가 이해하기를 원했던 모든 형태의 관용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신앙개조 제13조는 먼저본 것과 관련이 있는 또 다른 구절입니다. “우리는...만민에게의 선행을 믿는다.”

“만민에게의 선행”이란 표현은 “사람마다...똑같은 특권이 허용됨”보다 한 단계 넘어서는 자질, 즉 자선 또는 구세주와 같은 사랑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관용이란 자선으로 연결되므로

관용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에 이를 수 있는 지름길이란 없다고 믿습니다.

관용의 반대는 편협 또는 독선, 다른 말로 바꾸면 힝클리 부대관장께서 설명하신 결점 찾기와 비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때때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비난하거나 관용을 갖지 못할까요?

나는 그것이 나의 부친께서 내게 지적해 주신 여러 종류의 차이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차이로 다른 사람과 우리를 구별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복장이 비슷하고, 생각이 비슷하고, 행동이 비슷한 사람과는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와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신체적으로 불구나 차이점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불편한 느낌을 줍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차이에 대해 노골적인 지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따뜻하고 친절한 관계를 위해 그러한 차이점을 지나쳐 버리려는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 내부에 있는 영원한 것은 어떠한 신체적인 차이로도 약화시켜서는 안되는 혈족 관계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이는 어떤 차이를 낳아서도 안되는 한 가지 다른 점일뿐입니다. 내가 서른 다섯 살이었을 때 내가 존경하던 여든 두 살이 되신 할머니가 나에게 친구가 되어 주어서 기쁘다고 한 흐릿한 순간을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그런 방법으로 나의 장벽을 넘는 우정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아는 많은 것들을 나보다 연로하면서 현명하거나 나보다 어리면서 현명한 사람들을 지켜 보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는 가운데 배우게 되었습니다.

방금 언급한 신체적인 차이와 같은 것들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모든 문화적인 차이도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는 범세계적인 교회로서 각기 다른 많은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문제가 되는 것, 즉 가치, 원리, 진리 및 우리가 간증이라고 부르는 종교적인 경험을 쌓는 것 등의 차이점이 있는 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지식은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는 관용과 인내로써,
 십자가에 자신을 처형하는 자들조차
 적으로 여기지 않으셨던 구세주께서
 보여 주신 자비와 사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관용과 자비와 사랑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그들의 사상을 받아들이거나 자신을 격하시켜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다를 때, 우리는 무엇이 사람을 그들의 전통으로부터 분리시키는지를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훌륭한 사람도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우기 말일성도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며 의롭고 참된 원리를 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참으로 중요한 것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종교가 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독선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움으로써, 인간 정신을 퇴보시키고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는 사탄의 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멸망당하는 영혼을 붙잡히 여기게 되고 그들을 우리의 어깨 위에 올려 그들의 죄를 우리 뒤로 가려 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게 하려면 우리가 서로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27페이지)

복음은 우리에게 형제 자매의 약점과 죄를 비난하지 말며, 진리를 배우고 그대로 생활함으로써 죄를 피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우리가 생활로써 그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탄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무라고 비난하고 불의하게 판단할 때 분명히 웃을 것입니다.

나는 오래 전 초등협회에서 가르쳤던 열 한 살 짜리 소년에 대해 가끔 생각합니다. 그는 “말썹꾸러기”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알게 되었을 때 그가 말썹꾸러기라는 것은 잘못된 별칭임을 알았습니다. 그 별칭은 “정신 연령이 높은 아이” 또는 “다른 아이보다 앞서는 아이”라는 말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는 대답할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루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형제나 자매에게 변화하고 회개하게 합니까? 아니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선입견을 오랫동안 그대로 갖고 있습니까?

최근에 나는 교회 재판 장소를 분노하며 회개하지 않은 자세로 떠난 파문된 어떤 형제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재판에 참석했다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잘됐어. 그에게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까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추방하길 잘했어.” 그러나 참석했던 고등 평의원 한 사람은 그후 수년간 일주일에 세 번 저녁마다 이 사람을 찾아가 회개하고 다시 활동하게 하였으며 그는 결국 교회에 복귀했습니다.

최근에 또는 오래 전에 파문당한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젊은 미혼모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마약이나 알콜 문제로 변민하는 말일성도 청소년 아니면 일반 청소년 또는 선교사 연령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왜 이사가 1장 18~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태도를 보이지 못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것은 복음의 메시지 중 가장 아름다운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때로 애석하게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알려 주지 않은 내용의 하나입니다.

종교가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교리와 성약 108편 7절에서 라이만 셔만에게 주어진 권고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네 모든 대화로, 네 모든 기도로, 네 모든 훈계로, 네 모든 행위로 네 형제를 격려해 주라.”

이 구절에서는 모든이란 단어가 네 번이나 나타납니다. 예외가 없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능력에 따라 진리를 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는 가운데 우리가 인내를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자신을 처형하는 자들조차 적으로 여기지 않으셨던 구세주께서 보여 주신 자비와 사랑을 향해 상당한 전진을 할 것입니다. 그의 모범은 우리에게 관용으로부터 자비와 완전한 사랑으로 향해 가는 길을 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는 격노할 수도 있을 적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요한복음 12:32) 그와 같이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바치심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가족에게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

나이는 어떤 차이를 낳아서도 안되는 한 가지 다른 점일뿐입니다. 우리는 나이든 현명한 사람에게서와 마찬가지로 나이 어린 현명한 사람에게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회원은 선교사임

목적 : 자매들에게 모든 말일성도는 효율적인 선교사가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가복음 16:15)는 주님의 명령은 고대의 그의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에스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선교 사업을 좀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전의 어느 세대보다도 더 많은 것이 우리에게 기대됩니다.”(성도의 벗, 1985년 7월호, 8페이지)

효율적인 선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의 한 예로서 우리는 모사이아의 네 아들을 살펴볼 수 있다. 분명히 그들은 전파하는 일을 두려워 했었다. 그러나 준비하는 동안 그들에게는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외칠 용기가 생겨”났다.(엘마서 17:12)

이 젊은이들은 죄를 회개했으며 마음을 다해 복음에 따라 생활하려 노력했다.(모사이아서 27:32~37 참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열심으로 복음을 연구”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들 위에 영을 내리사 저들과 동행케 하시며, 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는 도구로 삼(아)...저들의 형제...에게 진리의 뜻을 가르치게”해 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하였다.(엘마서 17:2~3, 9 참조) 그들의 준비는 우리에게 좋은 표본이 될 수 있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선교사로서 머나먼 도시로 가거나 타향에 가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 친지, 친구, 가족, 친척 그리고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이 모두 다 세상의 일부이며 우리는 그들과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벨라드 장로는 우리가 선교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요약해 주었다. 첫째, 기도하는 가운데 날짜를 정해서 그

날에 누군가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인도해 주시도록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다.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감을 줄 때,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비회원의 이름을 알려 주시어 이 사업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력을 분명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여야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아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사업을 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구할 때,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에 큰 축복을 가져올 수 있다. 벨라드 장로의 말씀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연차 대회, 1984년 10월)

방문 교사를 위한 제언

1. 엘마서 17장과 26장을 읽는다. 우리가 선교 사업을 위해 자신을 준비한 후 그 일을 할 때 모사이아의 아들들의 모범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을 토론한다.
2. 비회원 또는 활동이 저조한 회원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의 경험에 관해 말한다. 복음을 전하게 될 누군가를 찾는 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도록 자매들을 격려한다.*

(관련 자료를 얻기 위해 가정의 밤 자료집 109-15, 208-9 페이지를 참조한다.)



장애자를

도움

칼멘 비 핑그리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필요 사항을 갖고 있다. 그들은 사랑받고 인정하기 원하며 똑같은 기쁨에 참여하고 경험하기를 원한다.

뇌 성 마비에 걸린 열 두 살 된 소년의 감독은 줄자를 갖고 이 소년의 집을 찾았다. 이 소년은 걷지도 못하고 물건을 나를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 자상한 신권 지도자는 그의 휠체어를 자로 재어서 성찬기를 얹을 수 있는 나무 받침대를 만들었다. 매주 워드 회원들은 다른 신권 소유자들이 휠체어를 밀어줌으로써 그가 회원들에게 성찬을 전달하도록 도와 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범을 지켜 보고 있다.

특별한 필요 사항을 갖고 있는 많은 회원들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현재의 입장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인정받고 있다.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와 회원들은 긍정적인 방법으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두려워한다. 이 잘못된 견해 몇 가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살펴보자.

잘못된 견해 1:

“특별한 필요 사항”이란 주제는 실제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워드에는 장애자가 한두 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1:

일반적인 인구에 비례하는 장애자의 수는 교회 회원의 수에도 반영된다. 어떤 지역에서는 이 숫자가 상당히 많을 수도 있다. 특별한 필요 사항을 가진 회원이 그렇게 많다면 어째서 교회에서

그들을 볼 수 없는 것인가? 최소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장애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장애자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맹인이나 휠체어에 탄 사람의 수는 극히 소수일 뿐이다. 학습 장애자, 지능 장애, 대화 혼란, 청각 장애, 행동 장애자 등의 장애자들은 외모로는 완전히 정상으로 보인다.

둘째, 우리는 교회에서 장애자를 많이 볼 수 없는데 그것은 그들이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자. 교회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나는 그곳에 가겠는가?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면, 참여할 기회가 없다면 그곳에 가겠는가?

잘못된 견해 2: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장애 때문에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대중의 일반적인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실 2:

장애가 있는 사람의 교회 활동은 그의 전 가족에게 영향을 미친다. 특별한 필요 사항을 가진 사람이 배척당하고 있다고 느끼거나 불편을 느껴 교회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면 자주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다.

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어느 젊은 여성의 부모가 한 다음과



같은 말에서 여러분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가? “정신적 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가족은 외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신 질환은 흔히 있는 일인데도 자주 무시되고 소홀히 하고 회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자가 가족에게 수치요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장애 문제가 아직도 많이 회피되고 있는 문제임을 알았습니다.”하고 한 어머니가 말했다. “와드 회원들은 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가족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우리의 경우에 도움과 안내를 위해 교회 밖의 조직을 찾아야 했습니다.”

특별한 필요 사항을 가진 아들을 둔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새로운 와드로 이사를 왔을 때 나는 감독에게 우리 애를 위한 반이 있는지를 알아보려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번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나에게 연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방문 교사와 가정 복음 교사가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시 우리의 문제를 도와 줄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지났지만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교회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남편과 나는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매주 특수 아동을 위한 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를 가진 어떤 사람이든 환영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이 훌륭한 여인은 후에 선교사를 만나 교회에 가입한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가족은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갔으며 그곳의 지도자가 아들의 필요 사항을 돌보아 주었고 그 가족은 이제 모두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장애가 있는 한 사람의 필요 사항을 돌보아 주는 것이 전 가족의 활동과 구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아직도 많은 가족들이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하면서 애쓰고 고난을 겪고 있다. 우리의 보살핌은 많은 경우에 “좋은 결말”을 가져 온다.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가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의 ‘하나님의 하시는 일’ 성도의 벗, 1985년 1월호, 58~61페이지를 참조한다.)

잘못된 견해 3 :

완전히 책임 능력이 없는 개인이라면 복음을 배울 필요가 없다.

사실 3 :

지능 장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이 지상 생활을 구원의 계획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복음의 원리에 대해 그들이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복음의 원리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인생에서의 시련을 참아내는 데 필요한 기술과 내적인 평화를 줄 수 있다. 복음은 그들이 이해와 인내, 용기와 소망을 갖도록 도와 준다. 복음은 그들이 가치있는 존재이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축복을 준다.

이 선량한 사람들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왕국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아홉 살 된 소녀와 대화를 하기 위해 수화를 배웠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헬렌과 같은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내 생애에서 가장 큰 과제이며 보람있는 부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칠 때 나는 영혼이 영혼을 가르친다는 느낌을 가지며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 생이 끝나면 하나님과 함께 그녀가 있는 곳에 나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욕구를 갖고 있다. 그들도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우리와 똑같이 참여하고 같은 기쁨을 갖기를 원한다.

한 청녀 지도자는 특별 활동의 밤에서 이렇게 강조해 말했다.
 “모든 청남 청녀는 복천년이나 부활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지금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견해 4 :

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도울 수 없다.

사실 4 :

돕고자 하면 도울 수 있다.

도울 수 없다는 생각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감독님께서 우리 아들의 상태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있는지에 관해 전혀 물어본 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특별히 더 이상스러운 것은 내가 그의 집행 서기이기 때문입니다. 가정 복음 교사도 우리 아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대체사 그룹 지도자도 그것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이나 가정 복음 교사, 대체사 그룹 지도자가 원래 무관심하고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좋은 분들입니다.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은 다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가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들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부상당한 사람을 보았을 때, 왜 다른 길로 돌아갔을까? 악하거나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두려웠을 것이다. 어찌면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을 수도 있다. 별로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다. 그들은 그들이 나타내 보여야 할 사람의 감정을 무관심과 냉담 또는 두려움 때문에 지나쳐 버린 것이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긴 사람은 정치적 적대자인 사마리아인이었다. 다친 사람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필요한 간호를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었다. (누가복음 10 : 29~37 참조)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원하면 도울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각성과 소망이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장애가 생길 수 있는 개인들과 똑같이 생각하도록 한다. 그들도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필요 사항을 갖고 있다. 그들도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우리와 똑같이 참여하고 같은 기쁨을 갖기를 원한다.

잘못된 견해 5 :

특별한 필요 사항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참여시키는 것은 그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사실 5 :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그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도 많다.

우리는 교회가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개인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교회 프로그램을 개인의 필요 사항에 맞도록 수정하는 데는 영감과 민감한 태도가 요구된다.

나는 휠체어에 앉아서 와드를 관리하는 감독을 알고 있으며 지능 장애를 입은 상호부조회 자매가 커다란 공지를 갖고 유아반에서 봉사하며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자매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머리와 목을 제외한 전신 마비가 된 어느 젊은 형제는 200명

이상의 개종자를 내며 복음 선교사를 끝마쳤다.

한 고등 평의원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맹인입니다. 그러나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중요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장애자는 할 수 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몇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장애자가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을 받은 모임이 끝난 후 불을 끄는 보조자로 부름을 받은 그들은 주님 왕국에서 봉사하는 데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잘못된 개념 6 :

나는 특별한 필요 사항을 가진 사람들을 동정하지만 솔직히 더 많은 계획을 수행할 시간이 없다.

사실 6 :

특별한 필요 사항을 가진 사람을 돕는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보다는 새로운 태도, 더 많은 시간 보다는 더 많은 보살핌을 의미한다.

몇 년 전에 우리 가족은 말일성도 소년단 야영에 참여한 적이 있다. 우리의 큰 아이들이 활동에 참가해 훌륭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자폐증이 있는 아홉 살 된 아들 브라이언은 매우 어려움이 많았다. 컵 스카우트 행사는 사고 및 언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 마련되지는 않았다. 외모로는 정상이지만 장애자인 아들의 행동에 대해 편협한 생각과 까다로운 태도를 보고 마음이 상하고 수치스러웠으며 고통스러웠다. 그는 그의 다른 친구들만큼 불쌍했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서 진행되는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브라이언이 가지고 있는 장애 문제를 설명하고 그를 키우는 데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그후에 자매들은 그 상황을 그들의 가족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한 시간 내에 모든 야영장에 있는 사람들은 브라이언에 관해 알게 되었다.

나는 순식간에 태도가 그토록 완전히 뒤바뀐 것을 본 일이 없었으며 그토록 사랑과 이해를 쏟아 주는 것도 느낀 적이 없었다. 그것은 교회가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을 알았을 때 그리스도와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는 훌륭한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는 나의 믿음을 확실케 해 주었다. 그들은 그 필요 사항에 대처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더욱 훌륭해질 것이다.

한 신권 지도자는 이렇게 말한다. “커트는 근육 운동에 문제가 있는 다운 증후군(몽고증)이 있는 소년단원입니다. 그는 소년단 대대와 함께 30킬로미터 정도 행군을 했습니다. 16킬로 미터쯤 갔을 때 그는 걷는 리듬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앞에 가던 아버지와 뒤에 있던 소년단장과 함께 한발 한발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가 행군을 마칠 때까지 여러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커트와 그를 돕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일시에 격려의 박수가 울려 나왔으며 커트는 자신있게 마지막 순간까지 걸으면서 이렇게 울며 외쳤습니다. ‘해냈어. 난 해냈어. 저 사람들이 날 위해 박수를 쳐요. 그들은 내가 잘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교훈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거든 이리로 데려오라. 너희 가운데 절름발이와 장님과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자와 수족을 못쓰게 된 자와 문둥병에 걸린 자와 마르는 병에 걸린 자와 귀머거리 등 온갖 질병으로 고난을 받는 자가 있느냐? 저들을 내게로 데려오라...나의 가슴이 자비로 충만함이라.”(니파이삼서 17:7)

이 자비하신 구세주께서는 아직도 살아 계셔서 우리가 지닌 장애나 연약함에도 관계없이 우리 각자를 사랑하고 계신다. 우리 모두가 그의 발자취와 모범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란다. 그의 특별한 자녀를 위해 봉사하려는 소망이 커지기를 바란다. 그들에 대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고 그들을 사랑하며 가르치며 주님의 왕국에서 그들의 곁에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새로운 각오와 순수한 우정으로 특별한 필요 사항을 지닌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알게 될 것이다. *

솔트레이크시티 보네빌 스테이크, 예일 제2와드 회원인 칼멘 비 핑그리는 초등학교 본부 임원이며 특별한 필요 사항을 지닌 회원들을 위한 교회 협의 평의회 회원이다. 브라이언 핑그리와 자폐증을 가진 어린이에 관한 기사는 성도의 빛, 1984년 3월호, “그렇게 가깝고도 먼 자폐증 아들과의 생활”, 15~22페이지를 참조한다.

너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느니라

줄리 하우월러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침례를 받은 뒤로 나의 생활은 더 이상 기쁠 수 없었으며 큰 성취감을 맛보았다. 교회에 대한 나의 사랑은 깊고 진실했다.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여러 직책과 활동에서 봉사하는 동안, 나의 간증은 성장했으며 강해졌다. 성신의 은사를 사용할 줄 알게 되면서, 나는 복음이 얼마나 참되고 감동적인 것인지 알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나는 반몰몬 텔레비전 쇼가 지역 기독교 방송국의 전파를 탈 때까지만 해도, 나의 간증을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을 가졌었다. 오직 한 부분만 보았을 뿐인데 그것을 본 것에 대해 무척 나쁜 감정을 느꼈으며 분노와 두려움까지 갖게 되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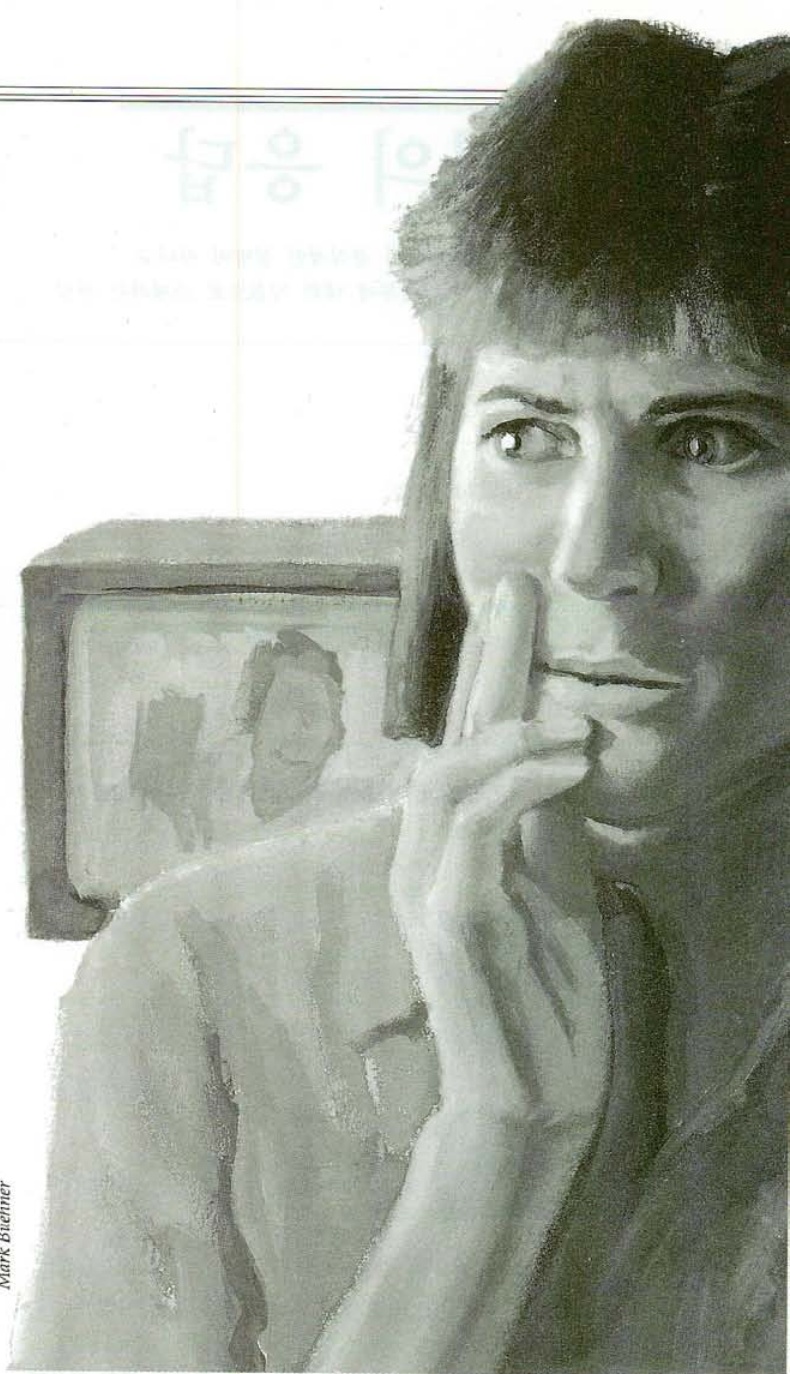
쇼를 보는 동안 느꼈던 공허하고 어두운 느낌은 계속 남아 있었다.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만일 교회가 참되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의 회원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축복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유혹을 받았다.

며칠 후, 남편이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내게 성전에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당시 우리가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성전이 600마일이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짐을 챙겨 훌쩍 떠날 수 있을까?

남편은 차를 몰고 가는 대신 비행기로 가기를 원했다. 우리는 겨우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갖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이 여행에 대해 기도하고 생각해 보았다. 결국 나는 성전 여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성전에서 느낀 평화로운 감정은 훌륭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Mark Buehner

성전은 무엇이며 그 일들은 무엇이고 교회는 진정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왜?”라는 의문을 품은 채 첫번째 의식에 참여했다. 두번째 의식에서 나는 마음에 여유를 갖고 행해지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

거의 기대도 하지 않았을 때 응답이 왔다. 따뜻하고 사랑에 찬 영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으며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너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느니라.” 이 조용한 확신이 즉시 나의 모든 의심을 없애 버렸다.

나는 반대자들의 선전에 의해 당황했지만, 그러한 투쟁에 감사하고 있다. 지금은 이 교회에 대한 나의 간증이 이전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 *

질의 응답

교회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성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흥미있는 질문에 대한 지침으로 소개하는 것임

유아 명명 및 축복은 구원에 필요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잔 이스톤 블레이크,
브리검 영 대학교,
교회사 및 교리학 부교수

유아 명명 및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1830년
4월에 주님께서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가진 그리스도의 교회 회원은 교회 회원이 모인 가운데
장로 앞에 자녀를 데리고 나와,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해야 하느니라.”(교성 20 : 70)

초기 교회 기록에는 자녀 명명 및 축복에 관한 증거가 많지는
않지만 그러한 축복은 분명 주어졌습니다. 1834년 4월 21일에
오하이오주 메디나군 노튼에서 개최된 대회 때 서기로 봉사했던
올리버 카우드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스미스 대관장은
어린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다.”(교회사, 7권,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8년,
2 : 54)

1843년 3월 13일 저녁에 가졌던 교회 모임에서 예언자는 또 한
무리의 어린이를 축복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스물 일곱 명의 어린이를 축복했다. 그중 열 이십 명은 열의를
다해 내가 축복했다. 힘이 빠졌다….

“(다음날) 제디디아어 엠 그랜트 장로가 전날 밤 내가 어린이를
축복할 때 얼굴이 창백해지고 기운을 잃은 이유를 물었다. 나는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축복하는 어린이들에게 루시퍼가 멸망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보았으며, 따라서 나는 축복을
그들에게 인봉하여 이 세상에서 삶이 안전하게 되도록 모든
신앙과 영을 다해 축복했으며, 그래서 나의 힘이 그만큼
어린이들에게로 빠져나가 약하게 되었으므로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나는 예수의 옷가를 만진 여인의
경우를 들어 이야기했다. (누가복음 8장)” (교회사, 5 : 303)

요셉 스미스는 주님의 계명과 모범을 따랐습니다. 참으로
구세주께서는 고대 이스라엘과 미대륙에 있는 어린이들을
축복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마가복음 10 : 14~16)

물론경은 구속주께서 니파이인 가운데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니파이삼서
17장 참조)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녀를 그에게 데려오게
하시고(11절), 무리와 함께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15절) 기도가 끝난 뒤, 구세주께서는
어린이들을 한 명씩 축복해 주셨습니다. (21절) 불이 “어린
아이들을 에워싸매…천사들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더라”(24절)

예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구속을
받았”(교성 29 : 46)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그의 모범에 대해 존 테일러 장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신권 소유자는 지체하거나 반대함 없이 열심히
따라야 한다.”(밀레니얼 스타, 1878년 4월 15일, 40 : 235~36)

나는 경전에서 새로운 이름이 가끔, 성약 관계가 형성될 때
주어지는 사실에 흥미를 갖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지상을

부모의 영향

다스리게 되었을 때(창세기 1:28 참조), 아담에게는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 주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창세기 2:19~20 참조) 마찬가지로, 이브를 아내로 맞이할 때, 아담은 그녀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창세기 3:20 참조)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첫 조상의 육신을 지으신 다음,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창세기 5:2)습니다.

그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성약을 맺으실 때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창세기 17:5 참조) 주님께서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똑같은 성약을 야곱에게 연장시키실 때에도 똑같이 하셨습니다.(창세기 35:10 참조)

우리는 침례의 물가에서 그리스도와 성약을 맺을 때 비슷한 모형을 따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꿰어지게 되며 그것이 우리가 불리우게 될 이름이 됩니다.(모사이야사 5:7~12 참조) 성전에서 맺는 더 높은 성약에도 이름을 부여하거나 부여받는 것이 포함됩니다.

각 경우에 이름을 주는 사람은 새 이름을 받는 사람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양육할 책임을 집니다. 반면에 이름을 받는 사람은 이름을 준 분을 존경하고 그의 권고에 따라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의 자녀가 육신을 입을 때, 그 어린이는 신권의 권능을 소유한 사람 또는 육신의 창조를 돕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자녀를 맡기신 사람에 의해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아버지(어머니)와 자녀의 이러한 새로운 관계를 축복사의 반차라는 성약 관계의 일부로서 영원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이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축복사의 반차는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현세와 영원을 통하여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이들은 하나님 백성의 권능이 갖고 있는 이 반차와 권능을 이해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며, 이로써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 즉 그의 자녀의 가장 높은 승명을 위한 자격과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관리 권능은 늘 아버지에게 주어져 있으며, 모든 가정의 일과 가족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권능은 없습니다….

“이 권능은 책임을 수반하여, 그 권리나 특권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임무를 갖습니다. 남성은 생활에서 훌륭하게 모범을 보여야 하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중요한 행동의 규범을 가족 조직 안에서 주의깊게 적용해야 합니다.”

스미스 대관장은 또한 아버지가 매월 갖는 금식 모임에서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 주고 축복을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며 “가장의 축복의 본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의 아버지가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축복을 행사할 수 없다면 그 어린이는 축복을 받을 수 없음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와드에서 신권의 열쇠를 관리하는 감독은 다른 장로에게 지명하여 이러한 축복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린이를 축복하는 장로들은 영의 인도를 받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그들의 신앙에 따라 받게 되는 약속된 그러한 축복을 받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68편 25~28절에 보면 부모는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는 분명한 계명이 있습니다.

“또 시온 또는 조직된 시온의 스테이크 안에 자녀를 가진 양친이 있으면 그 자녀의 나이 여덟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교성 68:25, 28)

요약하여 말하자면, 유아 명명 및 축복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합당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 주고 축복하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어린이의 축복은 그리스도 당시에도 행해졌으며, 회복된 교회 초기에도 있었습니다. 그후로 그 의식은 교회 회원에게 정규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

영의 노래

베키 토마스

구 내 도서관을 향해 부지런히 걷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서 오가고 있었다. 태양은 눈부셨으며 산은 푸른 하늘을 향해 우뚝 서서 나에게 잠시만이라도 머물러 서서 바라보라고 애원하는 듯했다. 그러나 시간이 없었다. 그 아름다운 날씨에도 나는 공부를 해야 했다. 다른 학생들도 내가 중간 고사 준비를 걱정하는 것 만큼이나 염려하는 빛으로 내 걸을 지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나처럼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그만두고 자신에게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도서관에 들어서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인문학 시험에서 내가 알아야 할 작곡가를 더듬어 보았다.

음악은 늘 내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음악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곡조에 가사를 붙이는 일도 좋아했다. 때로 가사는 나의 내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심각한 것일 때도 있고 다른 경우에는 내가 돌보는 어린이를 위해 쓴 단순한 것일 때도 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대학에서 인문 공부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 주 동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공부를 잘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기억할 수가 없었다. 아마 오늘은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가까이 있는 의자에 코트를 걸쳐 놓고 곧 책을 펼쳤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짜르트, 1756년 오스트리아에서 출생, 1791년 사망. 작품으로는...

그 일이 시작되었다. 나는 속으로 기원했다. “오늘은 제발 제발” 혼란과 어두움이 나의 생각을 방해했다. 두 주 동안 이 문제와 싸워온 것이다.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기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났다.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검은 물결, 악한 생각이 내 마음을 채우고 했다. 최근에 교회에 개종한 사람으로서 나는 적을 극복하는 방법을 이제 막 배우는 중이다. 나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이 어두운 구름때문에 공부하거나 읽는 일이 불가능해졌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짜르트, 출생은 일천 칠백...일천 육백... 기억할 수가 없었다. 나는 나의 생각이 다른 방향으로 이끌리고 있음을 느꼈다. 외우려고 할 때면 안개 짙은 어둠이 생각을 방해했다. 볼프강 ... 모짜르트, 그의 가운데 이름이 뭐였더라? 머리 속에서 이름이 맴돌았으나 알 수가 없었다. 다시 해보자. 마음속에 있는 혼란은 무시해 버려. 누구에 대해서 공부했는지? 나는 모짜르트의 생애를 말해 주는 페이지를 훑듯 쳐다보았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짜르트, 1756년 출생 ... 저속한 단어의 물결이 내 마음으로 흘러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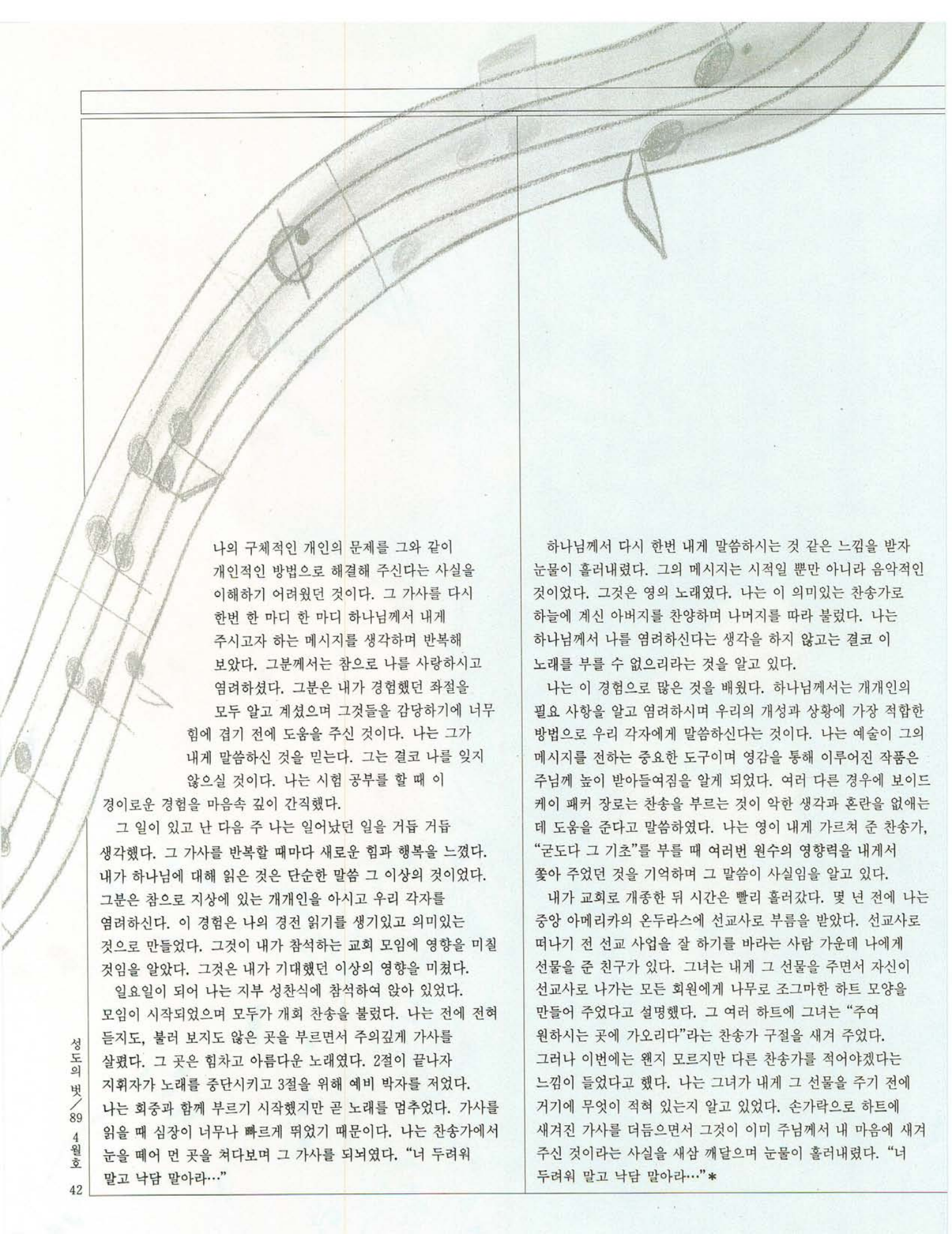
이 어두움이 더욱 짙어지자 나는 좌절감을 느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나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오, 아버지시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이상 더 할 수가 없습니다.”하고 나는 조용히 간구드렸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자마자 하늘에서 응답이 왔다. 혼란을 뚫고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시가 들려왔다. 들려왔을 뿐만 아니라 한 번 들은 후에도 기억할 수 있을 만큼 마음에 새겨졌다. 한 마디 한 마디가 분명하고도 의미를 가득 담고 있었다. 조금 전에 겪었던 정신적인 고뇌 대신 아름다운 소망의 메시지가 들려왔다.

너 두려워 말고 낙담 말아라
너희 주 하나님 나 함께 하리라
힘주고 도우어 높이 세우리라
전능한 손으로 전능한 손으로
내 손이 높이 널 받들겠노라

그 뒤 잠시 동안 나는 방금 일어난 일에 놀라 가만히 앉아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응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려웠다. 그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구체적인 개인의 문제를 그와 같이 개인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 가사를 다시 한번 한 마디 한 마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생각하며 반복해 보았다. 그분께서는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염려하셨다. 그분은 내가 경험했던 좌절을 모두 알고 계셨으며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너무 힘에 겹기 전에 도움을 주신 것이다. 나는 그가 내게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 그는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실 것이다. 나는 시험 공부를 할 때 이

경이로운 경험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주 나는 일어났던 일을 거듭 거듭 생각했다. 그 가사를 반복할 때마다 새로운 힘과 행복을 느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읽은 것은 단순한 말씀 그 이상의 것이었다. 그분은 참으로 지상에 있는 개개인을 아시고 우리 각자를 염려하신다. 이 경험은 나의 경전 읽기를 생기고 의미있는 것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내가 참석하는 교회 모임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았다. 그것은 내가 기대했던 이상의 영향을 미쳤다.

일요일이 되어 나는 지부 성찬식에 참석하여 앉아 있었다. 모임이 시작되었으며 모두가 개회 찬송을 불렀다. 나는 전에 전혀 듣지도, 불러 보지도 않은 곳을 부르면서 주의깊게 가사를 살폈다. 그 곳은 힘차고 아름다운 노래였다. 2절이 끝나자 지휘자가 노래를 중단시키고 3절을 위해 예비 박자를 저었다. 나는 회중과 함께 부르기 시작했지만 곧 노래를 멈추었다. 가사를 읽을 때 심장이 너무나 빠르게 뛰었기 때문이다. 나는 찬송가에서 눈을 떼어 먼 곳을 쳐다보며 그 가사를 되뇌었다. “너 두려워 말고 낙담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자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메시지는 시적일 뿐만 아니라 음악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영의 노래였다. 나는 이 의미있는 찬송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머지를 따라 불렀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염려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는 결코 이 노래를 부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이 경험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의 필요 사항을 알고 염려하시며 우리의 개성과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나는 예술이 그의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도구이며 영감을 통해 이루어진 작품은 주님께 높이 받아들여짐을 알게 되었다. 여러 다른 경우에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는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악한 생각과 혼란을 없애는데 도움을 준다고 말씀하였다. 나는 영이 내게 가르쳐 준 찬송가, “군도다 그 기초”를 부를 때 여러번 원수의 영향력을 내게서 쫓아 주었던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이 사실임을 알고 있다.

내가 교회로 개종한 뒤 시간은 빨리 흘러갔다. 몇 년 전에 나는 중앙 아메리카의 온두라스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선교사로 떠나기 전 선교 사업을 잘 하기를 바라는 사람 가운데 나에게 선물을 준 친구가 있다. 그녀는 내게 그 선물을 주면서 자신이 선교사로 나가는 모든 회원에게 나무로 조그마한 하트 모양을 만들어 주었다고 설명했다. 그 여러 하트에 그녀는 “주여 원하시는 곳에 가오리다”라는 찬송가 구절을 새겨 주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웬지 모르지만 다른 찬송가를 적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나는 그녀가 내게 그 선물을 주기 전에 거기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알고 있었다. 손가락으로 하트에 새겨진 가사를 더듬으면서 그것이 이미 주님께서 내 마음에 새겨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으며 눈물이 흘러내렸다. “너 두려워 말고 낙담 말아라...”*

신앙의 눈

로버트 비 하버트슨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멈춰서
기도하는
신앙보다는
달리면서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하루는 저녁 늦게 두 명의
청소년이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있었으며
그들은 더 일찍 귀가해야 했습니다.
곤경에 처한 그들은 시간을 절약하기로
하고 목장을 가로 질러 가기로
했습니다. 소년들은 목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장에는 크고 힘센 황소가 있었기
때문에 “통행 금지”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날은 어두워졌고 소는

소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좀더 빠른
지름길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울타리 밑으로 기어 들어가 목장의
반쯤 왔을 때(그곳에서는 다시 돌아올 수도 없었는데) 황소가
그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달려왔습니다. 소년들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명이 멈추어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무릎 꿇고 기도드리자.” 그러자 다른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드리고 싶으면 너나 해. 난
뛰면서 기도하겠어.”

나는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신앙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고
“뛰면서 기도드리는” 신앙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언제나 그러한 신앙을 믿어 왔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야고보서 2:17)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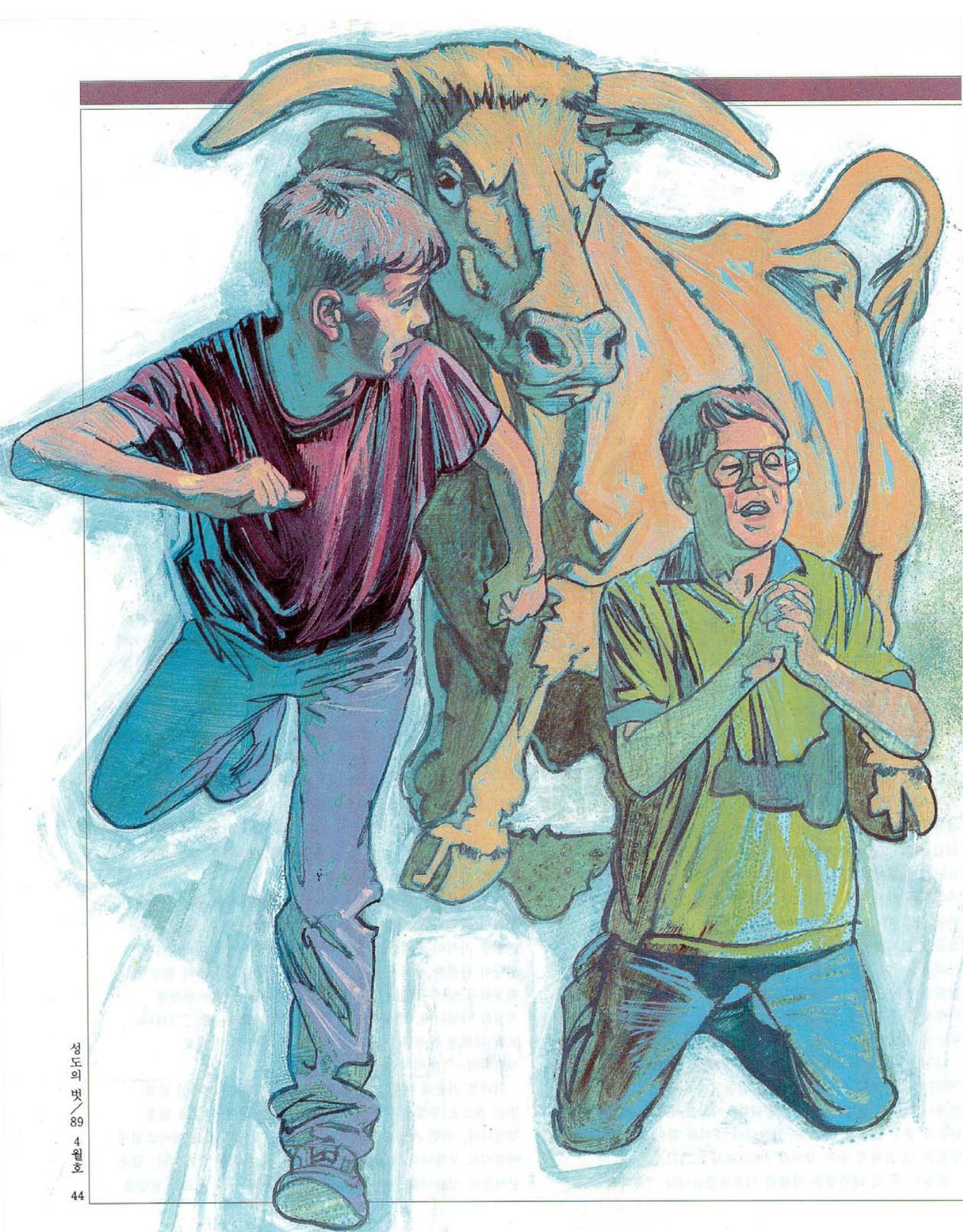
원한다면 그저 무릎 꿇고 기도만 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하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자신을
준비시키십시오.”

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충분한 신앙만
있다면 실제로 큰 노력을 하지 않고, 또는
가능한 것들을 행하지 않거나, “최선을
다해 뛰고, 뛰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어떤 일이든 일어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을 행사할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이러한 신앙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엘마서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에 관하여 이야기한 대로 신앙이란
완전한 지식이 아니었으며, 나의 말도 그렇지 못하니라. 이제
신앙이 완전한 지식이 아닌 것처럼 나의 말도 처음부터 완전히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신앙은 완전한
지식이 아닙니다. 엘마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보라 너희가 깨어나 너희의 능력으로 나의 말을 실제로
시험하며...”(엘마서 32:2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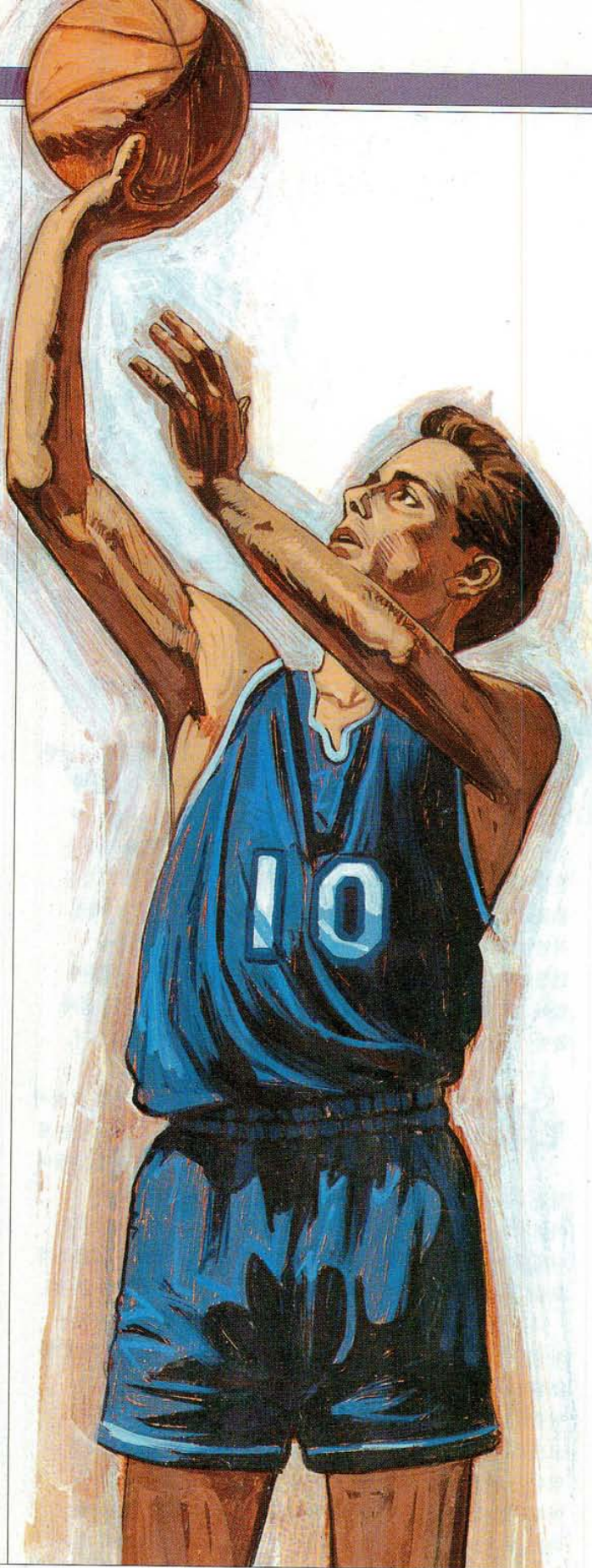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학교 문제, 또는 도덕적인 순결,
또는 참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고 하는 문제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이 과연 참된 것일까 하고 의아스럽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 의혹을 품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께서 엘마의 다음 권고의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을 실제로 시험하며 아주 작은 신앙을 품어 보려 할진대, 비록 너희가 믿겠다는 의욕만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바의 전부라면 바로 그곳-믿겠다는 의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믿겠다는 의욕이 내말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네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라.”(엘마서 32:27)

이더서 12장 5절에서 모로나이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더는 백성들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예언하여 전하였으되 백성들이 이를 보지 못하여 믿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더가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18절과 19절에서 모로나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를 막론하고 사람이 신앙을 갖지 아니하고 기적을 행한 자가 없으니, 저들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더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 전에도 돈독한 신앙을 가진 자가 많았던지라, 장막으로 가려지지 아니하여 저들의 눈 곧 신앙의 눈은 실체를 보고

기뻐하였으니”



경기 종료

신호 소리가 사라지자,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에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지.” 나는 뒤뜰에서 뿐만 아니라 마음 속으로도 이 일을 몇백번이고 되풀이했었습니다.

신앙의 눈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일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은하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 되고자 하는 바에 대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할 것인가에 대해 기꺼이 충분한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신앙의 눈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을 확고하게 심을 때 여러분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남을 보게

신앙의

눈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올
일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됩니다. 기꺼이 노력하고 신앙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되고 올바른 일을 하게 되며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의 생활에서 있었던 일을 한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나는 구기 운동이라면 무엇이든지 매우 좋아했습니다. 자라면서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운동에 대한 특별한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나는 농구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나는 비교적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공을 던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집에서는 링이나 공을 사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나무로 된 등근 통에 둘러 싸운 낡은 철판의 등근 띠를 하나 구해 그것을 건물 한쪽 벽에 박았습니다. 그런 다음 낡은 천을 모아 그것을 둘둘 감아 적당한 크기의 천으로 된 볼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저녁 학교에서 돌아오면 밖에 나가 링에다 천으로 된 볼을 던졌습니다. 나는 여러번 창고에 기어 올라가 천으로 된 볼에 맞아 휘어진 링을 곧게 펴야 했습니다. 나는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가 공던지는 일을 안하고는 견디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내 가 열 세 살 되던 해에 아버지께서 하루는 내 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비아, 진짜 농구 링을 갖는 게 어떻겠느냐?” 그는 철판으로 링을 만들고 뒤판을 만들어 링을 그곳에 달았습니다. 나는 나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그것을 건물 뒤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에게 최초로 진짜 농구공을 주셨습니다. 나는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나는 저녁마다 학교에서 집에 오자마자 연습했습니다.

나는 늘 마음속으로 언젠가는 훌륭한 농구 선수가 되어 있는 자신을 그려 보곤 했습니다. 나는 항상 전국 농구 결승전에서 몇 초를 남겨 놓은 상황 속에 있는 선수로 자신을 가정해 보곤 했습니다. 볼을 내가 갖고 있으며 점수는 동점입니다. 농구 코트를 향해 질주하며 룡 샷을 날려 공이 링에 들어가면 나는 영웅이 된 듯한 느낌을 갖곤 했습니다. 나는 전국 결승에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우승을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내가 메디슨 스쿼어 가든에서 경기하게 될 날을 꿈꾸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농구 경기장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장소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나는 유타주 로간에 있는 유타 주립 대학교에 농구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3학년 때 우리는 메디슨 스쿼어 가든에서 최초로 개최된 국경일 축제 경기에 초대되었습니다. 나의 꿈은 실현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전에 그려 보았으며 그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유타 주립 대학교 팀과 미국 전역에서 온 다른 팀과 함께 미국에서 제일가는 두 개의 팀이 토너먼트에 초대되었습니다. 우리 팀은 첫날 이류 팀과 경기를 했으며 게임은 막상막하였는데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나는 최다 득점자였으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날 저녁 유타 주립 팀은 다른 훌륭한 팀과 경기를 했는데 그것도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겼으며 나는 다시 최다 득점자가 되었습니다.

한 팀이 국내 최강팀과 결승에서 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힘들고 막상막하의 경기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4점 이상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경기 종료 2분을 남겨 놓았을 때 유타 주립 팀은 4점을 앞서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볼은 우리 편에서 갖고 있었으며 우리는 약간 시간을 끌 계획을 세웠는데 상대 선수가 패스하는 우리의 공을 가로채서 득점을 했습니다. 유타 주립 팀은 이제 2점을 앞서 있었고 시간은 1분 반 정도 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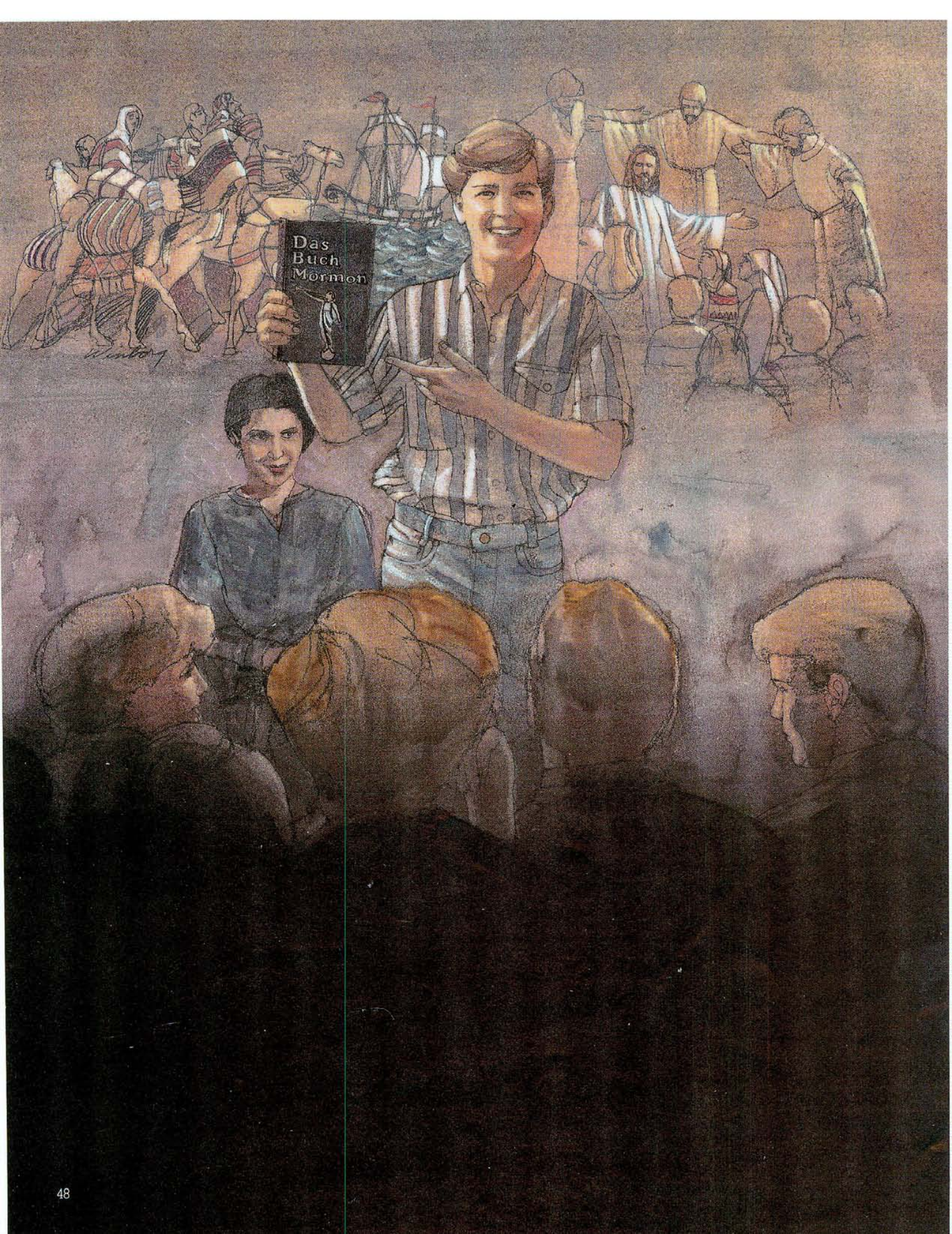
우리는 다시 플로어로 나가 방해받지 않고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올 때까지 공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 가운데 한 사람이 공을 몰고 들어가서 던졌지만 실패했습니다. 상대방에서 다시 공을 갖고 득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점수는 동점이고 시간은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볼은 우리가 갖고 코트로 나와 던졌지만 들어가지 않았으며 리바운드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35초를 남겨 놓고 그들이 공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파울을 범할 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왜 스포츠를 하게 되었을까 하고 자신을 탓할 정도가 됩니다. 그들은 시간이 10초 가량 남을 때까지 공을 돌리다가 그날 저녁 점수를 계속 잘 올리는 선수가 바스켓으로 달려가서 던졌습니다. 나는 링의 가장자리를 빙빙돌다가 결국은 밖으로 떨어져버린 공을 아직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편 선수 한 사람이 리바운드를 잡아 내게 던졌습니다. 나는 코트의 가장자리로 나가 10여 미터 정도의 장거리 슛을 던졌습니다. 골인이었습니다! 경기 종료 신호가 울리고 우리는 국경일 축제 토너먼트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경기 종료 신호 소리가 사라지자,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에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지.” 나는 뒤뜰에서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이 일을 몇백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나는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나는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나의 신앙과 노력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개 발시키고 싶은 재능이든 생활하고 싶은 복음의 표준이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앙을 키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 이상의 그 무엇입니다.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그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황소에게 쫓기는 소년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여러분은 그에 합당해야 하고 신앙의 눈이 더 밝아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음에 확고하게 심기위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기 원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성취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싶습니까? 유덕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마약, 담배, 술, 춘화 등 오늘날 세상에 만연하는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더 밝은 신앙의 눈을 갖게 되면 유혹과 부정적인 일들이 여러분 앞에 놓일 때 여러분의 결정은 올바른 것이 될 것입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은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서가 아니라 적을 대하기 훨씬 이전이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꺼이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리는 결정은 남은 생애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과 내적인 평화는 옳은 일을 선택할 때 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눈이 밝아져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인도받고 강화되기를 빕니다. *



책에 대한 보고

로버트 에이버리 그레이 이세

“이번 새 학년도에는 여러분 각자가 수업을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에 대해 차례로 이야기해 주기를 바랍니다.”하고 문학 교사인 프로츠카 여사가 말했다.

어떤 책을 발표할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어머니와 나는 당시 서독의 본에 살고 있었으며 이제 막 중학교 3학년이 된 것이다. 류 왈러스의 *벤틀러*를 소개할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책이 과연 내게 가장 큰 인상을 준 책일까?

아니야. 나는 내게 영향을 미친 책이 몇 년 전 두 젊은 선교사가 어머니와 나에게 침례를 주고 나서 준 책—*물몬경을 읽을*을 알고 있었다.

나는 학교에서 유일한 말일성도였다. 그런데 감히 이 새로운 경전을 반원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

나는 내가 어떻게 이 책을 읽었으며 그에 대해 기도하고 그것이 거룩한 말씀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는지 기억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내 의견을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내가 옳다고 느끼는 것을 하라고 격려했다. 어려운 일이 시작되었다. 나는 리하이와 그의 가족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이야기체로 *물몬경*을 소개하기로 했다. 많은 기도와 생각 끝에 나의 머리에 올바른 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다.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다른 많은 학생들이 어떤 면에서 사탄과 어두운 면을 다룬 책들을 발표하는 것을 알았다. 나는 어느 때 보다도 이들에게 주님의 변호인이 되고 싶었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다. 대개 학생들은 그들이 소개하는 책의 제목을 시작할 때 칠판에 적었지만, 나는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그것을 마지막으로 미루었다. 놀라게 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선생님에게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후에 나의 발표가 잘 진행되고 반원들이 잘 받아들여도록 기도하며 오전을 어떻게 보냈는가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어머니의 기도는 참으로 도움이 되었다. 처음에 리하이의 시현과 광야의 여행에 관해 설명을 시작하자 몇몇 학생이 “성경 얘기구나”하면서 놀리려 했다. 그러나 갑자기 반이 조용해졌으며 나는 *물몬경*의 역사를 부드럽고 조용하게 이야기한 뒤 그 참됨에 대해 간증했다. 주님의 영이 거의 지각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느껴졌다.

이십 분쯤 후에 나는 선생님과 반원이 아무말도 없는 것을 보고

보고를 마쳤다. 그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모두 나를 높이 평가했으며 학교에서 그런 종교 서적을 발표할 수 있는 용기를 칭찬했다.

나는 교회와 또 어머니와 나의 개종에 관해 더 이야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수업이 끝난 뒤 어떤 학생들은 *물몬경*을 구해 달라고까지 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우 친한 친구를 사귀었으며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옹호해 주는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들은 후에 내가 스페인에서 선교 사업을 할 때 편지를 보내고 도움을 주기도 했다.

몇 주가 지나가고 같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역사 시간에 우리는 미대륙의 고대 문명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숙제를 하는 동안 나는 *물몬경*에 관해 반에서 다시 말하고 싶은 강한 욕망을 느꼈다. 나는 무릎을 꿇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사 하는 기도를 드렸다. 기도를 마친 후에 나는 *물몬경*에 관해 다시 발표할 준비를 해야겠다는 것을 느꼈다.

다음날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할 때 나는 손을 들었다. 그러나 내가 말을 하기 전에 선생님은 나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 로버트야. 지난 밤에 오늘 수업에 관한 것을 준비할 때 갑자기 네 생각이 났지. 네게 뭔가 *물몬경*에 대해 할 말이 더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야.”

이번에 나는 주로 그리스도께서 고대 미대륙을 방문하신 것에 역점을 두었다. 나는 위대한 하얀 신 케찰코아틀의 전설이 나와 있는 책을 인용했다. 그리스도와 이 인디안의 하나님 사이의 유사점은 분명했다. 다시 한번 나는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미대륙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셨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다고 말했다.

내가 말을 마치자 선생님은 칠판에 이렇게 적었다. “*물몬경*은 미대륙에 고대 문명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말해 주는 가장 훌륭한 책이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 말을 우리의 노트에 적어 넣으라고 하셨다.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 나는 기뻐서 뛰고 싶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분은 참으로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또한 그의 목적을 위해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

“여 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달렸는데 예수께서 오사...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 : 26~29
